

2011~2025년 한국고대사연구 게재 논문의 연구 동향 분석

홍승우(경북대학교 역사교육과)

<목 차>

1. 머리말
2. 게재 논문 수 변화 추이 분석
3. 필자에 대한 분석
4. 주제 관련 분석
5. 맺음말

1. 머리말

1987년 2월 ‘한국고대사’와 관련된 연구 및 학술조사를 통하여 한국고대사 연구의 발전을 기하는 데 목적을 두고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국고대사연구회’는,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그 규모가 확대되었고, 그 결과 1997년 2월에 이름을 ‘한국고대사학회’로 바꾸면서 한국고대사 분야 전문 학회로서 확고한 위상을 가지게 되었으며, 한국고대사 분야 학회 중 가장 지명도와 권위가 높은 학회로 자리잡았다.

『한국고대사연구』는 1988년 7월 제1집을 출간한 이래 연 1~2호를 발행하다가, 2000년부터 연4회로 간행 횟수를 늘렸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우수한 논문을 다수 게재한 결과 2002년에 등재후보학술지로, 2005년에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이후 계속 등재학술지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2025년 12월까지 총 120호를 발행하는데 이르렀다.

한국고대사학회의 가장 큰 장점은 활발한 학술활동의 전개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자료나 주목을 받는 연구 주제가 있을 경우 비정기적으로 ‘판독회’나 ‘특별 학술회’를 기획하여 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매년 매년 6회(4·5·6·10·11·12월)의 ‘정기발표회’를 공개적으로 개최하며, 또한 한국고대사 관련 주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그에 대한 심화된 연구성과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하계 세미나(7월)’와 ‘동계 합동토론회(2월)’도 열고 있다.

하계 세미나와 동계 합동토론회는 비교적 장기 기획에 바탕을 둔 집중 연구 주제를 정하고 이루어져 한국고대사학회의 학술활동의 정화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매년 6차례 열리는 정기발표회야말로 한국고대사학회가 학계에서 그 권위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행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다수의 정기발표회를 많은 청중을 대상으로 여는 학회는 거의 없다. 단순히 횟수가 많은 것만이 아니라, 다수의 연구자와 대중들이 참여하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학회는 유례가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본 발표가 있는 2026년 4월 11일의 정기발표회는 200회 특집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 학회의 출발지라고도 할 수 있는 대구에서는 매년 5월에 정기발표회가 열리는 전통이 있지만, 올해에는 200회 특집을 기념하기 위해 예년보다 한달 빠른 4월 정기발표회가 대구에서 열리게

되었다. 이렇게 전국 각지를 순회하여 학술활동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한국고대사학회의 정기 발표회는 더 특별하다.

정기발표회에서는 원칙적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발표가 이루어지며, 사실상이 정기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학회지 『한국고대사연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이 발표는 정기발표회 200회를 기념하여 『한국고대사연구』 게재 논문들의 양상을 분석하는 일련의 기획 논문 중 하나로서, 2011~2025년, 곧 61~120호에 게재된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한국고대사 학계를 대표하는 학술지 『한국고대사연구』의 논문들을 분석하는 것은 곧 한국고대사 학계의 연구 동향을 파악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하겠다. 다만 이 발표는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분석하려 하므로 주로 계량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고, 질적 분석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연구논문 외 서평, 설림 등의 글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구체적 분석 내용은 우선 논문 편수의 변화를 통해 한국고대사 학계 연구량의 추이를 살펴 보았는데, 연도별 편수의 변화, 그리고 논문들의 주 활용 자료 및 연구 대상 시기(국가)를 통해 전반적인 연구 활성화 정도와 경향을 파악해 볼 예정이다.

다음으로 연구자들의 소속 기관 비중을 통해서 연구자 구성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에 더하여 중진과 신진 연구자들의 구성 비율의 변화도 찾아보았다. 다만 대상 기간이 15년에 달하여 그 사이 같은 연구자의 소속 기관 변화가 있어서 정확한 분석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학회 활동 연구자 구성의 추이 변화의 대체적인 모습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특집 논문을 중심으로 주요 연구 주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학계의 관심사 변화 추이를 고찰하려 한다.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나오는 주제들이 의도적으로 기획된 특집 논문들과 연관되어 있어서 자연스러운 추세라고 하기 힘든 점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획 자체가 학계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중심으로 만들어졌을 것이기에 시기별 한국고대사 학계의 주요 주제의 변화 추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발표문의 연구는 논문들의 주제와 연구자들을, 발표자가 임의로 데이터화 하고 그것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발표자의 주관적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주 활용 자료’ 항목의 경우, 다수의 논문이 문헌과 고고학 및 출토 문자자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논문마다 어느 하나를 특정하는 것은 힘들다. 하지만 분석을 위해 필자가 생각하기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다고 보는 요소 하나만을 데이터로 삼았다. 그렇기에 분석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2. 게재 논문 수 변화 추이 분석

2011~2025년 동안 총 60호가 발행되었는데, 게재된 총 글의 숫자는 567편이고, 그중 정규 논문은 특집 논문(이하 특집) 210편과¹⁾ 연구논문(이하 일반)²⁾ 310편으로³⁾ 합하면 520편이

1) 해당 기간 동안 『한국고대사연구』에 특집으로 분류된 섹션에 있는 글은 모두 211편이다. 그러나 98호의 [특집:발견 40주년 기념 "충주고구려비 연구의 새 단계"]에 실린 첫 번째 글 「충주 고구려비 공동 판독안」은 학회의 판독회 결과를 정리한 것이어서 특집의 편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여서 이 발표에서는 특집 편수를 210편으로 정하였다.

2) 『한국고대사연구』에서 특집이 아닌 일반 투고 논문의 명칭은 ‘연구논문’이지만, 이 발표문에서는 ‘특집’과 대응하도록 ‘일반’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3) 원래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논문의 편수는 309편이다. 그런데 119호의 목차에서 ‘연구논문’이 ‘일반논문’으로 쓰여지고, ‘연구동향’이라는 이전에 없는 섹션이 새로 생겨, 小宮秀陵의 「최근 일본의 한국고대

다.4) 나머지 47편은 심사를 받지 않은 비정규 논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평 19편, 설림 18편, 자료소개 6편,5) 회의보고 1편, 좌담회 1편, 연구노트 1편, 답사보고 1편이 있다. 호별 게재 글들의 숫자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2> 2011~2025년 『한국고대사연구』 게재 글 수 일람

연도	호수	특집	일반	서평	설림	자료 소개	회의 보고	좌담회	연구 노트	답사 보고	합계	논문합 계	연도별 논문수
2011	61	6	4								10	10	39
	62	6	2	1							9	8	
	63	6	2								8	8	
	64	7	6								13	13	
2012	65		6			1					7	6	35
	66	4	4								8	8	
	67	9	3								12	12	
	68		9							1	10	9	
2013	69		8								8	8	35
	70	7	3	1			1				12	10	
	71	5	3			1					9	8	
	72		9								9	9	
2014	73		4			2					6	4	28
	74	5	2			2					9	7	
	75	6	4								10	10	
	76	4	3								7	7	
2015	77		8			2					10	8	31
	78	4	6								10	10	
	79		7	1		1					9	7	
	80		6	1		1					8	6	
2016	81	6	1	1							8	7	36
	82	4	5	1							10	9	
	83	5	5	1							11	10	
	84	8	2	2							12	10	
2017	85	4	7	2							13	11	37
	86		7								7	7	
	87	3	6					1			10	9	
	88	4	6								10	10	
2018	89		6			1					7	6	24
	90		5								5	5	
	91	3	5			1					9	8	
	92		5	2		1			1		9	5	
2019	93	6	2			1					9	8	32
	94	6	1			1					9	7	
	95	5	4	1		2					12	9	
	96	5	3								8	8	
2020	97		7								7	7	35
	98	5	3			1					9	8	
	99		10								10	10	
	100	8	2								10	10	

사 연구 동향과 과제-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모색-」이 구분하여 실렸다. 119호만 다른 호와 게재 글의 구분이 달라져 혼란스러운데, 일단 이 발표문에서는 이 논문이 형식상 정규 논문의 체재를 갖추고 있어서 '일반'으로 분류하였고, '연구동향'을 별도의 분류로 만들지 않았다.

- 4) 전체 논문 목록은 <부표 1>을 볼 것.
 5) 원래 자료소개는 5편이 있으나, 위의 주 1)에서 언급한 특집 세션에 있으나 특집 논문으로 보지 않았던 글의 성격이 자료소개에 가깝다고 판단하여, 자료소개의 편수에 포함시켜 두었다.

2021	101	5	3	1						9	8	38
	102	6	5							11	11	
	103		9	1						10	9	
	104	3	7							10	10	
2022	105		9							9	9	31
	106	5	3							8	8	
	107		6		1					7	6	
	108	6	2							8	8	
2023	109		9							9	9	37
	110	5	3	1						9	8	
	111		11		1					12	11	
	112	7	2		1					10	9	
2024	113		6							6	6	36
	114	4	2							6	6	
	115	7	4							11	11	
	116		13							13	13	
2025	117	3	7							10	10	46
	118	7	2	1		1				11	9	
	119		12			1				13	12	
	120	11	4	1						16	15	
합계	210	310	19	18	6	1	1	1	1	567	520	

<표 1>에 보이듯이 매년 30~40편 정도의 논문이 꾸준히 실리고 있다. 2025년이 46편으로 가장 많으며, 2018년이 24편으로 가장 적고, 28편의 2014년과 31편의 2015~2022년이 그 뒤를 잇는다. 통상 특집이 많은 경우 편수가 많은데, 2014년의 경우 특집이 1회 밖에 없어 전체적으로 편수가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10년대 중반 정도부터 일반의 편수가 적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고, 2020년대 들어서 일반 편수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게재 편수가 안정화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대 일반 편수가 적었던 것은 활발한 기획을 바탕으로 특집 편수가 많았던 이유도 이겠지만, 『한국고대사연구』가 비교적 게재하기 어려웠던, 곧 반드시 학회 발표를 해야만 일반 게재가 가능하였던 것도 큰 이유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한국고대사 관련 학회가 많이 늘어나면서 투고 수가 줄었던 경향도 있었다고 보인다.

1세대 역사학회와 2세대 한국사연구회, 그리고 3세대 한국역사연구회 등 여러 분야와 시대를 망라하는 학회들과 달리 1987년 시작한 한국고대사학회는 특정 시대 학회로 출발한 최초의 학회로 한국고대사 분야의 유일한 전문 학술지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인근 학문인 고고학 및 미술사 등과 연계한 『한국상고사학보』(1988~)나 『선사와 고대』(1991~)이 나오기는 하였지만 연구자에 비해 학술지가 많은 편이 아니었으며, 『한국고대사연구』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또 전체적으로 학술지들의 발간 횟수가 적었으므로 투고 논문은 많은 편을 유지하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1998년 한국연구재단(당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술지 제도가 시작되면서, 학술지들이 일정한 발간 회수와 논문 편수가 있어야만 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더하여 1994년 고구려연구소에서 시작한 고구려발해학회(2007)의 『고구려발해연구』(2002~), 신라사학회(2002)의 『신라사학보』(2004~), 백제학회(2008~)의 『백제학보』(2009~), 가야사학회(2021)의 『가야사연구』 등 개별 국가별 한국고대사 전문 학회들의 설립과 학술지 발간이 지속적으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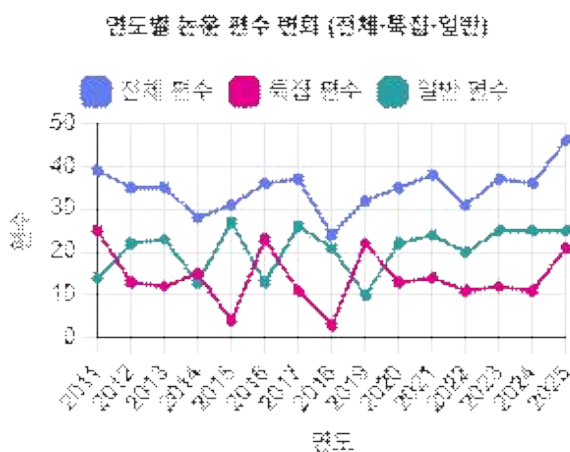
어지면서 연구자 풀에 비해 학술지의 수가 과다해지고, 이에 게재 논문의 수가 적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다른 한국고대사 분야 학술지 『한국고대사탐구』(2009)이 『역사논총』(2026)으로 이름을 바꾸어 종합 역사 학술지로 변화한 배경에도 이러한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다.

반드시 발표를 거쳐야만 하여서 중진 연구자들의 투고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또 특집의 비중이 높았기에 신진 연구자들의 투고도 활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10년대에 게재 논문의 편수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평의원에 한하여 발표하지 않고도 투고가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만들어지고, 또 활발한 학술발표가 이루어지는 매우 드문 학회의 장점이 충분히 발휘되면서 2020년대에 들어서 안정적인 게재 편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던 듯하다. 2020년 이후 전반적인 게재 논문 편수의 확장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양상은 특집과 일반의 비율 변화를 통해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다음 <표 2>는 연도별 특집 논문과 일반 논문의 편수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특집과 일반 편수 연도별 통계

연도	특집 (편)	일반 (편)	합계 (편)	특집 횟수
2011년	25	14	39	4
2012년	13	22	35	2
2013년	12	23	35	2
2014년	15	13	28	3
2015년	4	27	31	1
2016년	23	13	36	4
2017년	11	26	37	3(하나의 특집을 2호에 걸쳐 게재)
2018년	3	21	24	1
2019년	22	10	32	4
2020년	13	22	35	2
2021년	14	24	38	3
2022년	11	20	31	2
2023년	12	25	37	2
2024년	11	25	36	2
2025년	21	25	46	3(2호가 특집 주제록 2개씩 게재)
총계	210	310	520	38



2011년이나 2016년, 2019년과 같이 특집 편수가 일반 편수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예외적인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대체로 일반 편수가 특집보다 2배 정도 많아서 평균적으로 1:1.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일반 논문들이 원래 특집의 일부였다가 시기적으로 늦게 투고 및 게재 되면서 일반 논문이 되어 버린 경우도 적지는 않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일반 논문은 정기발표회를 거친 일반 투고 중심이기에, 사정에 따라 변동이 심한 특집 논문보다 일반 논문의 숫자가 안정적으로 편수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일반 논문의 편수가 현저히 적은 2011, 2016, 2019년의 경우 4호 모두에 특집이 있어서, 일반 논문을 더 많이 실을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통은 매년 20~25편 정도의 일반 논문이 게재되면서 전체 논문 편수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볼 때, 다수의 특집은 전체 게재 논문 편수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특집 논문이 없을 경우 게재 논문 편수의 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며, 정기발표회를 거쳐 게재되는 일반 연구논문은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한국고대사연구』를 지탱하는 튼튼한 버팀목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반 편수가 부족한 경우는 거의 특집 편수가 많아 상대적으로 실을 지면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며, 전체 편수가 매우 적은 연도는 모두 특집 논문이 극히 적었기 때문임을 볼 수 있다. 기간 중 가장 많은 편수가 실린 2025년의 경우 일반 논문은 평균적 숫자를 유지하면서, 특집 편수가 크게 늘어난 결과라 하겠다.

3. 필자에 대한 분석

1) 연구자별 게재 편수 분석

다음 <표 3>은 15년 동안 발행된 60호의 『한국고대사연구』에 논문을 게재한 필자들의 수를 게재 편수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4> 게재 편수별 저자 숫자 통계

게재 편수	10	8	7	6	5	4	3	2	1	합계
인수	1	2	1	8	4	13	25	54	184	293
전체 편수	9	16	7	48	20	52	75	108	184	520
특집 편수	7	6	2	21	11	28	27	36	72	210
일반 편수	3	10	5	27	9	24	48	72	112	310

이 표에서 확인되다시피 15년간 『한국고대사연구』에 1편이라도 논문을 실은 필자는 모두 293명이다. 전체 520편의 논문이므로 평균으로 보면 1인당 1.77편을 게재한 것이다. 9편을 게재한 연구자가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한 사람으로 1인이 있다. 그 뒤를 이어 8편을 실은 사람이 2인, 7편 1인, 6편 8인이 있는데, 이들이 게재 수 기준 상위 12인이다.

『한국고대사연구』는 특집을 제외하고 연이은 게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소수의 사람이 많은 게재를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없다. 1편 투고한 사람이 184명으로 전체 게재자 수 293명의 과반을 훌쩍 넘기고 있다. 여러 편의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들도 거의 대부분의 집중적인 게재 양상을 보이지 않고, 1년에 1편 정도로 게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표 5> 게재 수 상위 12인 게재 양상

연구자	전체 편수	특 집 편수	일반 편수	게재 연도
A	10	7	3	2012(2편), 2013(2편), 2017(2편), 2019, 2020(2편), 2023
B	8	3	5	2011,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2
C	8	3	5	2011, 2013, 2014, 2017, 2019, 2023, 2025(2편)
D	7	2	5	2011, 2012, 2013, 2015, 2016, 2017, 2018
E	6	3	3	2011, 2013, 2014, 2015, 2024, 2025
F	6	1	5	2011, 2012, 2013, 2017, 2019, 2020
G	6	1	5	2011, 2014, 2015, 2017, 2019, 2025
H	6	4	2	2017, 2018, 2019, 2020, 2023, 2024
I	6	2	4	2013, 2014, 2017, 2020, 2023, 2024
J	6	5	1	2011(2편), 2013, 2014, 2019, 2021
K	6	0	6	2012, 2016, 2017, 2018, 2021, 2024
L	6	5	1	2011(3편), 2015, 2017, 2024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는 4번에 걸쳐 1년에 2편씩 게재하였지만, 3번은 특집이 포함된 예외적인 경우였고, 일반 논문을 1년에 2회 게재한 것은 2017년뿐인데 이 경우도 3호 수 차이가 있어서 연속 게재라 하기 힘들다. 다른 11인의 연구자도 1년에 2편 이상 게재한 경우 모두 특집을 포함한 경우이며, 일반 논문으로만 1년에 2편 이상을 게재한 경우는 없다. 연구자 L의 경우 2011년 3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지만, 모두 특집이라는 예외 경우였다.

결국 『한국고대사연구』의 연속 게재 불가라는 투고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 발표의 대상 시기 3편 이하의 논문을 게재하는데 머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소속 기관 분석

다음으로 게재 연구자들의 소속 기관 통계를 살펴보겠다. 분석 대상 기간인 15년은 매우 긴 시간이어서 신진 연구자들의 경우 이 사이 소속 기관의 변경이 심한 편이다. 그리고 게재자 수가 293명에 달하여 현실적으로 이들 모두의 소속 기관을 현재 기준으로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 발표에서는 논문에 실린 소속 기관과 신분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리하였다. 이 발표의 분석은 학술지 발간 당시의 상황이 중요하기에 현재 시점의 소속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 발표가 전체 논문의 정보를 정리한 <부표 1>에서는 소속 기관 분류를 신분을 포함하여 ①대학 교원(강사, 학과 연구교수 포함), ②대학 연구소(박물관 포함), ③전문 기관(국공립 민간 구분 없음), ④복합(해당 기간 내 앞의 세 분류의 2가지 이상 다른 종류로 소속을 표기한 경우)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부표 1>을 보기 바란다.

게재자 293명의 소속 기관 전체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어렵고 또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우선 앞에서 살펴본 상위 게재자 10인의 소속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게재 수 상위 12인 소속 기관

소속 기관	숫자
대학교(연구소, 박물관 포함)	9
전문 기관	1
복합	2

기본적으로 상위 10인은 대학교 소속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를 전체 게재자로 확장하더라도 비슷한 양상이다. 게재자 소속 전체 기관 중 80% 이상이 대학교로 『한국고대사연구』에 논문을 실은 게재자의 거의 대부분을 대학교 소속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전문 기관의 경우 주로 특집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재 논문 수를 기준으로 상위 10개 기관과 게재 논문 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게재 수 상위 10개 기관 게재 논문 수

순위	기관명	특집 편수	일반 편수	총 편수
1	고려대학교	9	20	29
2	경북대학교	5	17	22
3	동국대학교	4	17	21
4	연세대학교	6	13	19
5	한국외국어대학교	9	10	19
6	동북아역사재단	7	11	18
7	전남대학교	2	15	17
8	서울대학교	8	8	16
9	국민대학교	6	10	16
10	단국대학교	2	12	14
	합계	58 (28%)	133 (43%)	191

전체 520편의 논문 중 상위 10개 기관 소속 연구자의 논문 숫자는 191편으로 그 비중이 높다고 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특집의 경우 이들 10개 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논문 비율이 28% 정도로 그다지 높지 않아 여러 기관에 잘 분산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비교적 여러 기관(주로 대학교) 소속 연구자들이 고르게 논문을 게재하고 있는 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일반 논문의 경우 상위 10개 기관 소속 연구자의 게재 논문 비율이 43%에 달하여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 중 대학교의 경우 해당 대학교 전공 교수 다수가 게재 수 상위 12인에 속한 경우가 많은 편이다. 하지만 그 게재 논문 숫자가 소속 기관 전체 논문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활발한 연구 성과를 보여주는 교수를 중심으로 연구 인력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기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한국고대사 전공 교수가 있으며 대학원이 활발히 운영되는 대학교들이 상위 기관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상위 10개 기관 중 전문 기관은 하나인데, 한국고대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서 소속 연구자들이 원래 학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연구자여서 그 게재 논문 수가 많은 편이기도 하며, 또 특집 공동으로 기획하기도 하여서 이러한 성과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9개 대학교 중 2개가 지방 소재 대학교라는 것이다. 한국사학계에서 다

수의 연구자가 수도권 중심으로 배출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한국고대사학회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경북대학교는 전체 논문 수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학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경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가 상위권을 차지한 배경은 수도권 대학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전공 교수가 있으며 대학원이 활성화되어 있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한국고대사학회가 1년에 6차례에 걸쳐 수도권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에서도 꾸준히 정기발표회를 개최하면서, 지방 소재 대학교의 연구자들이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고대사학회의 강점이 이 부분에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소속 기관이 없는 일반인들이 논문을 게재한 사례는 없다. 이는 학회 발표를 거친 후 논문 투고라는 절차가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측면도 있을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학회 투고 규정의 다음 문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대사학회 원고투고규정」

- 9. 학회지에는 원칙적으로 회원 중 역사학 및 관련 분야 학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혹은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투고할 수 있다.
- 11.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해 학회에서는 저자의 소속과 직급(위) 및 학위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며, 저자는 이에 동의해야만 투고를 할 수 있다. 저자는 원고작성원칙을 참조하여 자신의 현 소속이나 학위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투고 원고에 명시해야 한다. 해당 정보가 부족하거나 의심스러울 때 편집이사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투고자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하며 거부시 투고할 수 없다.

석사학위 소지자와 전문 기관 종사자로 투고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에 일반인들의 투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 규정은 미성년자 등 자격없는 자의 논문 저자 등재가 정치·사회 문제화가 되면서 한국연구재단에서 학회 규정으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고, 그에 응하여 기존 투고 규정을 수정하고 새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물론 그 이전부터 일반인들의 논문 게재는 없었지만 이제 규정으로서 완전히 막힌 것이다.

3) 외국인 연구자 분석

분석 기간 중 논문을 게재한 외국인 연구자는 모두 10인이다.⁶⁾ 그 게재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8> 외국인 연구자 게재 논문 수 일람

저자명	특집	일반	합계	연도
李成市	1	0	1	2011
拜根興	0	1	1	2012
羅新	1	0	1	2012

6) 이 발표에서 분류한 외국인 연구자는 국적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소속 기관이 속한 나라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井上直樹	1	0	1	2012
李明仁	1	0	1	2012
孫仁杰	1	0	1	2013
耿鐵華	1	0	1	2013
右島和夫	1	0	1	2016
小宮 秀陵	0	2	2	2018, 2025
배노찬	0	1	1	2025
합계	7	4	11	

중국과 일본 두 나라의 연구자들이 중심이다. 일본 연구자 중 3인은 한국고대사 전공 연구자로서 그 중 2인은 한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로 한국학계와 친밀한 관계에 있다. 중국 연구자는 가장 근래 게재된 1인을 제외하면 모두 중국인으로서 한국고대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연구자들로 모두 특집에 초대를 받아 논문을 게재하였다. 외국인 연구자들의 게재 양상을 정리하면 대체로 2012, 2013, 2016년의 특집을 기획할 때 청탁을 받아 게재된 사례들이 대부분이고 주제도 고구려에 편중되어 있는 편이다. 그 이후 상당 기간 외국인 연구자의 논문 게재는 없다가, 한국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일본 대학 교수가 된 연구자가 2편 논문을 게재하면서 다시 외국인의 게재가 재개되었다.

『한국고대사학회』는 외국인 연구자의 참여 비중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데, 동아시아 관계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외국인 연구자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참여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겠다.

4. 주제 관련 분석

1) 연구 대상 시대(국가)에 대한 분석

이제 『한국고대사연구』 게재 논문들의 연구 대상이 되는 시대(국가)와 관련하여 통계를 살펴해보겠다. 사실상 많은 논문들이 여러 시대(국가)들을 같이 다루고 있어서, 논문들이 다루는 시대(국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대체로 제목과 키워드 등을 통해 논문이 주로 관심을 기울이는 시대(국가)를 발표자가 자의적으로 추출하여 정리하였는데, ①삼국이전, ②고구려, ③백제, ④신라, ⑤가야, ⑥삼국(복합), ⑦통일신라, ⑧발해, ⑨후삼국, ⑩기타로⁷⁾ 분류하였다.

<표 9> 시대(국가)별 논문 수와 비중

시대	전체	특집	일반
고구려	96 (18.5%)	36 (17.1%)	60 (19.4%)
삼국이전	83 (16%)	25 (11.9%)	58 (18.7%)
백제	77 (14.8%)	24 (11.4%)	53 (17.1%)
신라	77 (14.8%)	26 (12.4%)	51 (16.5%)
기타	59 (11.3%)	41 (19.5%)	18 (5.8%)
통일신라	51 (9.8%)	18 (8.6%)	33 (10.6%)
가야	36 (6.9%)	17 (8.1%)	19 (6.1%)

7) 기타의 경우 중국사나 일본사 등 다른 나라 역사와 관련한 것, 또는 대중화나 활용 혹은 다른 학문 분야, 역사교육 등 한국고대사 자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주제를 모은 것이다.

삼국(복합)	24 (4.6%)	13 (6.2%)	11 (3.5%)
후삼국	9 (1.7%)	6 (2.9%)	3 (1.0%)
발해	8 (1.5%)	4 (1.9%)	4 (1.3%)
합계	520 (100%)	210 (100%)	310 (100%)

전체 논문수를 기준으로 하면 고구려, 삼국이전, 백제, 신라, 기타, 통일신라, 가야, 삼국(복합), 후삼국, 발해 순으로 논문 수가 많다. 특집만 따로 볼 경우, 고구려, 기타, 신라, 삼국이전, 백제, 통일신라, 가야, 삼국(복합), 후삼국, 발해 순이며, 일반만 따진다면 고구려, 삼국이전, 백제, 신라, 통일신라, 가야, 기타, 삼국(복합), 발해, 후삼국 순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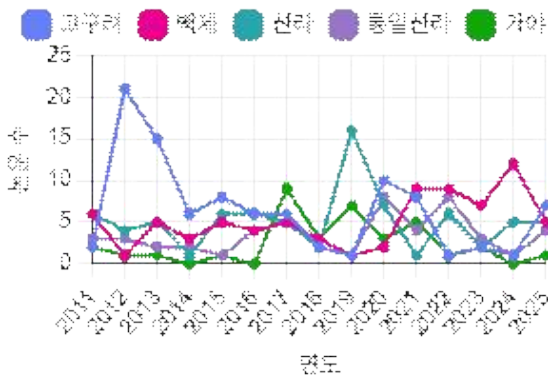
어찌보면 당연하겠지만 삼국시대가 가장 비중이 높다고 하겠는데, 그중에서 고구려가 가장 많고, 백제와 신라는 거의 비슷하다. 다만 기획물의 성격이 강한 특집을 제외하고 일반 논문만을 본다면 근소하게 백제가 앞서고 있다. 학계에 연구자 수를 볼 때, 2000년 이후 고구려사 전공자들이 크게 늘어난 환경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다수의 특집 논문들이 일반 논문으로 게재되었던 이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시대별 게재 논문 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0> 연도별 시대(국가) 논문 수 일람

연도	가야	고구려	기타	발해	백제	삼국	삼국이전	신라	통일신라	후삼국
2011	2	2	8	2	6	0	9	6	3	1
2012	1	21	2	0	1	2	1	4	3	0
2013	1	15	3	1	5	0	2	5	2	1
2014	0	6	2	0	3	4	5	1	2	5
2015	1	8	3	0	5	0	7	6	1	0
2016	0	6	11	0	4	1	4	6	4	0
2017	9	6	1	0	5	1	5	5	5	0
2018	3	2	2	1	3	0	9	2	2	0
2019	7	1	2	1	1	0	3	16	1	0
2020	3	10	2	0	2	1	2	7	8	0
2021	5	8	5	0	9	3	2	1	4	1
2022	1	1	0	3	9	1	2	6	8	0
2023	2	2	7	0	7	3	11	2	3	0
2024	0	1	6	0	12	0	11	5	1	0
2025	1	7	11	0	5	3	10	5	4	0

연도별 주요 시대(고구려·백제·신라·통일신라·가야) 논문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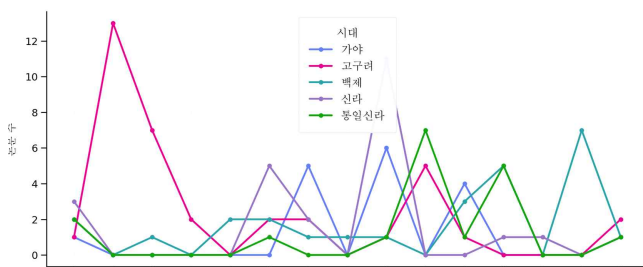
기본적으로 특정 시대(국가) 논문 수의 증가는 관련 특집의 존재가 큰 영향을 미친다. 2011~2013년 및 2020년의 「광개토왕비」, 「집안 고구려비」, 「충주 고구려비」 등 고구려 관련 특집이나 2017~2019년의 가야사 특집, 2019년의 신라 동해안 3비 관련 특집 등을 전후한 시기에 해당 시대(국가) 논문의 수가 크게 늘어남은 분명히 확인된다.

그런데 특집의 경우 의도적 기획의 성격이 강하므로 자연스러운 추세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한국고대사학계에서 시대(국가)별 논문의 비중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 논문에 한정하여 분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일반 논문에 한정하여 시대(국가)별 논문 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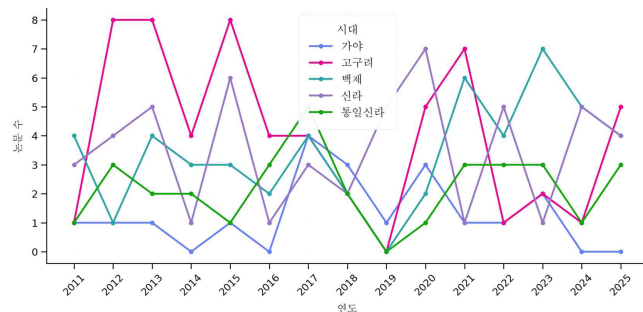
<표 11> 일반 논문의 연도별 시대(국가) 논문 수

연도	가야	고구려	기타	발해	백제	삼국	삼국이전	신라	통일신라	후삼국
2011	1	1	0	0	4	0	3	3	1	1
2012	1	8	2	0	1	2	1	4	3	0
2013	1	8	1	0	4	0	1	5	2	1
2014	0	4	1	0	3	0	2	1	2	0
2015	1	8	2	0	3	0	6	6	1	0
2016	0	4	0	0	2	0	3	1	3	0
2017	4	4	1	0	4	1	4	3	5	0
2018	3	2	2	1	2	0	7	2	2	0
2019	1	0	2	0	0	0	2	5	0	0
2020	3	5	1	0	2	1	2	7	1	0
2021	1	7	1	0	6	2	2	1	3	1
2022	1	1	0	3	4	1	2	5	3	0
2023	2	2	2	0	7	1	7	1	3	0
2024	0	1	2	0	5	0	11	5	1	0
2025	0	5	3	0	4	1	5	4	3	0

연도별 주요 시대 논문 수 추이 (특집)



연도별 주요 시대 논문 수 추이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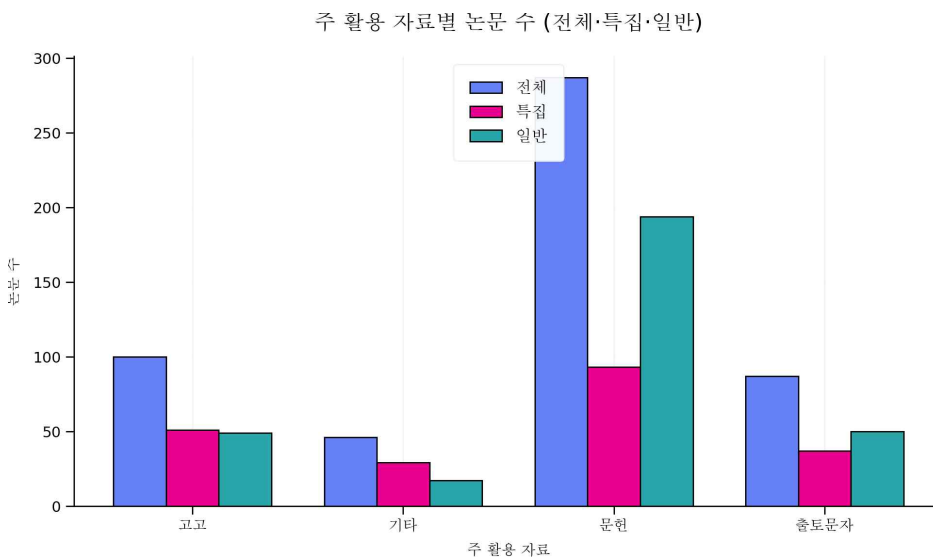
고구려, 백제, 신라는 전시기에 걸쳐 일정한 수가 유지되지만, 고구려나 신라의 경우 특집이 있었던 시기에 일반 논문도 크게 늘어난다. 이는 고구려와 신라 특집의 상당수가 새로운 출토 문자자료의 등장으로 많은 관심을 끌던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일반 논문으로도 다수의 논문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신라 역시 전시기에 안정적으로 일정한 수의 논문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그에 비해 가야, 기타, 후삼국의 경우 특집이 없는 시기에는 논문 수가 현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후삼국이나 발해는 연구자의 저변이 넓지 못하고, 가야는 고고학 중심으로 연구자가 많아서, 일반 논문이 다수 『한국고대사연구』 실리기는 어렵다는 것이 확인된다. 기타는 전통적인 고대사 연구 주제가 아니어서 특정한 시기 특집으로서 논문이 실릴 수밖에 없어서 일반 논문에서는 비중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2) 주 활용 자료 분석

<부표 1>에서 게재 논문들이 논지 전개에 활용한 핵심 자료를 문헌, 고고자료, 출토 문자자료(금석문과 목간), 기타(미술, 인골, 교과서, 디지털 등)의 4종류 중 하나를 설정하여, ‘주 활용 자료’ 항목이라 이름 붙이고 제시하였다. 그 통계를 내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2> 주 활용 자료 통계

구분	문헌	고고자료	출토 문자자료	기타	합계
편수(편)	287	100	87	46	520
비율(%)	55.19	19.23	16.73	8.8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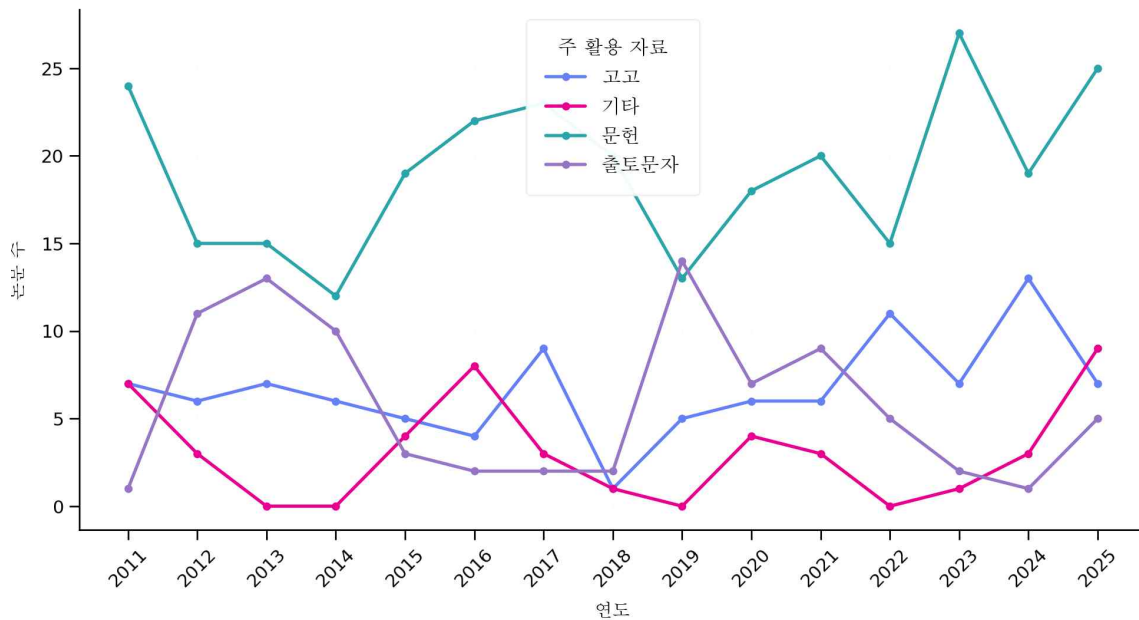
전통적인 문헌 자료 중심의 연구가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고대사 분야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해도 좋을 고고자료를 활용한 것이 약 20%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금석문이 목간과 같은 새로이 발견된 출토 문자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1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집 등에서 여러 다른 자료들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기타의 비중이 9% 정도에 달하지만, 일반에서는 그 숫자가 많지 않다. 다만 미술자료는 일반에서도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편이다.

주 활용 자료의 연도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표 13> 주 활용 자료 연도별 통계

연도	문헌	고고	출토문자	기타	합계
2011	24	7	1	7	39
2012	15	6	11	3	35
2013	15	7	13	0	35
2014	12	6	10	0	28
2015	19	5	3	4	31
2016	22	4	2	8	36
2017	23	9	2	3	37
2018	20	1	2	1	24
2019	13	5	14	0	32
2020	18	6	7	4	35
2021	20	6	9	3	38
2022	15	11	5	0	31
2023	27	7	2	1	37
2024	19	13	1	3	36
2025	25	7	5	9	46
합계	287	100	87	46	520

주 활용 자료별 연도별 논문 수 추이



전반적으로 문헌 사료의 비중이 가장 높게 유지되어 전통적인 연구 방법론이 계속 주류를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20년대에 들어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보이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다른 자료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고고학 자료를 활용한 연구 역시 2018년과 같이 전체 논문 편수가 현저히 적은 극히 예외

적인 시기를 제외하고는 20% 정도의 비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고고학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크게 늘어난 시점은 주로 특집 주제와 관련이 있다. 가야나 초기 신라와 같이 고고학의 비중이 높은 주제로 특집이 있거나, 경주 동궁과 월지의 발굴 성과를 정리하는 학술대회가 있는 시기 등 고고학과 연계되는 특집 주제가 있는 시기에는 고고자료를 활용한 연구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한국고대사연구』는 고고자료보다는 문헌 자료를 활용하는 비중이 약 3배 가까이 높아서, 연구방법의 중심이 전통적인 역사학 방법론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근래까지 이러한 경향이 이어지고 있으며, 신진 연구자들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감이 없지 않다. 다만 2022년과 2024년에 각각 11편과 13편이 고고자료를 주로 활용한 논문이어서 기간 중 가장 많은 편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로 특집 편수의 증가에 기인바가 크지만, 고고자료 활용 연구 역시 지속적으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대 들어서 점차 확대되어 가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출토 문자자료의 경우 그 비중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거나 기술적 발전에 힘입어 기존 자료를 더욱 정밀하게 조사하게 되면서 그것을 활용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일어난 시기를 찾아볼 수 있다. 2012년에 광개토왕 서거 1600주년을 맞이하여 대대적으로 「광개토왕비」를 재검토한 것이나, 2013년 「集安高句麗碑」의 발견으로 일련의 연구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9년에는 「포항중성리신라비」 발견 10주년을 맞이하여 6세기 초 신라 동해안 3비를 재검토하였으며, 새로운 촬영 기법을 통해 보다 정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도 다수의 연구들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2020년에도 「충주 고구려비」를 대상으로 한 정밀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역시 출토 문자자료의 연구 성과가 다수 나왔다. 다만 근래에는 새로운 출토 문자자료의 발견이 목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목간과 같은 출토 문자자료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회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한국고대사연구』에는 단편적인 출토 문자자료 관련 논문들이 게재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기타 주제와 관련하여 우선 주목해 볼 만 것은 2011년 12월에 나온 64호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입각한 2011년 발행 교과서의 한국고대사 부분 서술을 전면적으로 다룬 논문들과 2025년 6월의 118호에 실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맞이하면서 실린 3편의 교과서 분석 논문들이다. 그간 한국사 관련 학회들이 역사교육과 다소 거리를 두고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한국고대사학회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기에 2011년 이후 14년만에 역사교육이나 교과서 관련 논문이 특집으로 다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 사이에 국정교과서 파동이나 2015 개정 교육과정 하의 교과서 등의 이슈가 있었고 관련하여 다수의 논문들이 다른 학술지에 나왔지만, 한국고대사 분야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한국고대사연구』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

다음으로 2020년 이후 기타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는데, 이는 디지털 역사학의 도입이나 세계적 팬데믹 환경 하에서 전염병과 의학 방면으로의 관심 증대, GIS와 같이 지리학과 연계하는 등의 새로운 융합적 학제간 연구 모색, 그리고 콘텐츠나 대중 역사학과 같이 연구 성과의 대중적 활용, 최근에는 AI와 같은 첨단 과학 기술의 도입과 활용 등,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새로운 연구 환경과 지향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특집이 시도되면서 전통적인 한국고대사 연구논문들과 결이 매우 다른 논문들이 게재된 결과이다.

주 활용 자료를 통한 분석을 상위 게재자 12인을 대상으로 해보기 위해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 표들과 같다.

<표 14> 게재 수 상위 12인 논문들의 주 활용 자료 일람

주 활용 자료	편수	비율
문헌	42	51.85%
출토문자	21	25.93%
고고	9	11.11%
기타	9	11.11%
합계	81	100%

<표 15> 게재 수 상위 12인 개인별 주 활용 자료 일람

저자	문헌	출토문자	고고	기타	합계
A	5	4	1	0	10
B	4	4	0	0	8
C	6	1	0	1	8
D	6	1	0	0	7
E	3	2	1	0	6
F	2	1	2	1	6
G	3	3	0	0	6
H	6	0	0	0	6
I	3	3	0	0	6
J	0	1	5	0	6
K	0	1	0	5	6
L	3	3	0	0	6

게재 수 상위 12인 역시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의 연구자가 문헌과 출토 문자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고 자료와 그 분석을 중심으로 한 논문을 주로 실었던 사람은 1인이 있을 뿐이었다.

3) 특집 주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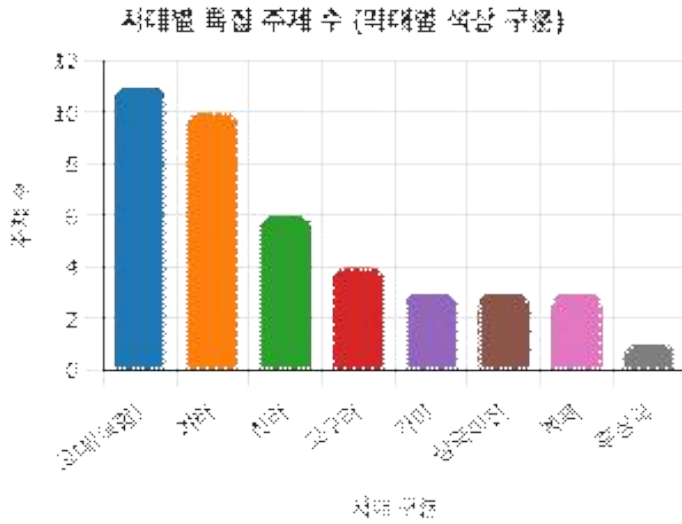
이제 마지막으로 특집 주제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 시기 특집 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⁸⁾

<표 16> 2011~2025년 『한국고대사연구』 특집 주제 일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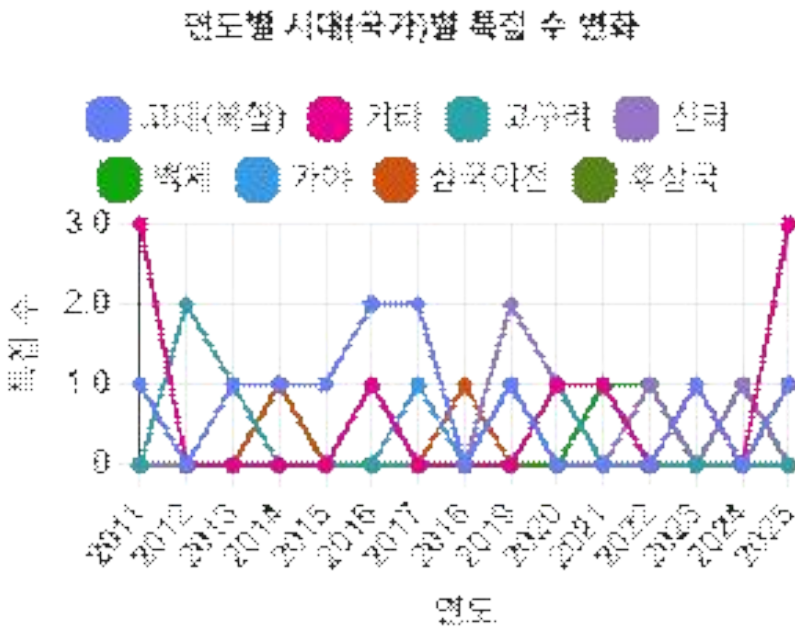
연도	호수	특집 주제	논문편수	시대
2011	61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 100년) 식민주의적 한국고대사 인식의 비판과 과제	6	기타
2011	62	실학자들의 한국고대사 연구	6	기타
2011	63	동아시아 고대의 길	6	고대(복합)

8) 이 표의 '시대'는 기본적으로 앞서 본 '시대(국가)'의 구분과 같지만, 개별 논문이 아니라 일련의 논문들이 모인 특집의 주제여서, 여러 시대를 다루는 몇 편의 논문을 포괄할 수 있는 분류여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둘 이상의 시대를 포함하는 분류로서 '삼국(복합)' 대신 '고대(복합)'을 사용한다.

2011	64	[임의]교과서의 한국 고대사 서술	7	기타
2012	66	압록강 중상류 고구려 유적·유물의 역사적 성격	4	고구려
2012	67	고구려 광개토왕과 동아시아	9	고구려
2013	70	신발견 '집안 고구려비' 종합 검토	7	고구려
2013	71	[임의]한국 고대의 도성	5	고대(복합)
2014	74	후백제 왕도 전주의 재조명	5	후삼국
2014	75	고구려·백제유민 묘지명의 검토	6	고대(복합)
2014	76	고조선 연구의 새로운 모색	4	삼국이전
2015	78	한국고대사상의 익산	4	고대(복합)
2016	81	한국 고대사회의 공동체	6	고대(복합)
2016	82	사로국의 건국과 성장	4	신라
2016	83	한국고대의 왕권	5	고대(복합)
2016	84	대중과 소통하는 한국고대사	8	기타
2017	85	가야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4	가야
2017	87	한국고대사의 쟁점	3	고대(복합)
2017	88	한국고대사의 쟁점	4	고대(복합)
2018	91	삼한 소국과 백제, 신라	3	삼국이전
2019	93	6세기 금석문과 신라 사회	6	신라
2019	94	[임의]가야사	6	가야
2019	95	새로운 고대사연구를 위한 모색	5	고대(복합)
2019	96	포항중성리신라비의 재검토	5	신라
2020	98	발견 40주년 기념 "충주고구려비 연구의 새 단계"	5	고구려
2020	100	100호 기념	1	기타
2020	100	동궁과 월지 조사 연구 현황과 과제	8	신라
2021	101	한국고대사와 창녕	5	가야
2021	102	한국 고대의 질병과 의약	6	기타
2021	104	무령왕릉을 다시보다	3	백제
2022	106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봉영기와 새로운 백제사 인식	5	백제
2022	108	신라 왕경의 도시구조	6	신라
2023	110	세계사 속의 고대	5	기타
2023	112	한국 고대의 전쟁과 동아시아 국제관계	7	고대(복합)
2024	114	우리 시대의 한국고대사	4	신라
2024	115	백제 웅진기 동아시아의 문물 교류와 지리·교통	7	백제
2025	117	『일본서기』를 통해 본 격동의 7세기 동아시아	3	기타
2025	118	고대사 연구 방법론의 새로운 모색과 확대-디지털 고대사	4	기타
2025	118	2022개정 교육과정과 한국고대사	3	기타
2025	120	동북아 국제정세와 한국고대의 이주·정착	6	고대(복합)
2025	120	마한의 사회 구성과 문화	5	삼국이전



개별 논문의 주제로서 시대(국가)와 달리 특집 주제에서는 고대(복합)과 가야의 비중이 개별 시대(국가) 보다 훨씬 크다. 이는 특집 주제가 특정 국가나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보다 어떠한 주제를 시대(국가)별로 구분하여 일련의 연구들을 진행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음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2011~2025년 기간 중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인다.



분석 기간 중 특집 주제를 일별해 보면, 특정 주제에 대해 각 시대별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고대(복합)'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새로운 출토 문자자료나 특정 문화유산을 기념할 만한 시점, 예컨대 광개토왕 서거 1600년이나 무령왕릉 발굴 50주년과 같은, 혹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새롭게 검토해 볼 수 있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 「충주 고구려비」나 「포항중성리 신라비」가 있었는데, 전적으로 특정 자료나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특집 역시 일정한 시점

에 계획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특집 주제의 변화에 특이한 사항이라 하기는 힘들다.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기타’로 분류되는 주제이다. 기타는 2011년에 3건이라는 많은 수를 보여주다가 2016년에 1건, 2020년에 1건, 2021년에 1건 등으로 축소되었다가 2023년 새로운 시도로 기타 주제가 다시 등장하고 2025년에는 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추이는 어떠한 경향성에 의한 것일까.

2011년의 3건을 보면, 먼저 일제의 국권 침탈 100년을 맞아 한국고대사에서 식민사학의 영향과 그것의 극복 방안이라는 전통적인 주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정리하고 진일보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 하나가 있다. 다른 하나인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인식이라는 고전적 주제 역시 비슷한 성격이다. 세 번째 주제는 교과서 분석으로 역사교육과 관련이 있다.

이들 세 주제는 고대 역사 그 자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사학사적 검토에 가까운 것이어서 통상의 고대사 연구 주제들과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그 주제와 연구방법론에서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힘든 것들이어서 이전 시기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학술적 연구 중심의 주제들이다. 그런데 2013~2021년까지 기간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먼저 연구 성과의 대중화라고 하는 역사학 자체와 다소 결이 다른 주제를 다루는 ‘기타’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2020년의 1건은 100호 기념이고 여러 편으로 이루어진 특집이 아니어서 분석 대상으로 하지는 않겠다. 2016년의 대중화라는 주제는 고대사 연구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연구자이다라는 이전까지의 인식에서 벗어나 소비자로서 대중을 인지하고 그들을 중심에 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의 필요성과 함께 만들어진 것으로 이전까지의 특집 주제들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었다.

이제 한국고대사 연구의 주제와 방법론에서 새로운 변화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021년과 2023년의 특집은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이전까지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생태 환경과 세계사의 연동이라는 새로운 주제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고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가져온 변화라 생각된다. 이어서 2025년에 이르면 전통적인 기타 주제인 일본사와의 연계나 역사교육을 주제로 한 것도 있지만, AI라는 과학 기술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세계적 상황에서 한국고대사 연구의 방향성과 방법론이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전통적인 주제와 방법론에서 벗어나면서 기타 주제의 비중이 늘어난 것이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한다.

특집 주제의 변화 추이를 통해 잘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한국고대사 연구의 방향성과 방법론에서도 디지털, GIS, 공공역사, 세계사와의 연동, 생성형 AI, 생태 환경 등의 키워드들이 부각되고 주목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상황이 『한국고대사연구』에서도 확인된다고 하겠다.

5. 맺음말

이상에서 게재 논문들의 편수, 저자, 주제에 대해 계량적 분석을 해보았다. 이 내용을 토대로 2011~2025년 기간 동안 한국고대사 연구의 변화상을 살펴보면 크게 3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2011~2012년은 전통적 연구방법론 중심으로 문헌 사료와 고고학 자료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광개토왕비」와 같은 출토 문자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이 다수 있기는 하였지만 이는 재검토나 정리에 가까웠다.

다음으로는 2013~2020년까지로 새로운 「집안고구려비」나 「함안 성산산성 출토 신라 목간」 등과 같은 출토 문자자료들이 새로이 나오면서, 출토 문자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이 크게 늘어

나는 경향을 보인 시기이다. 출토 문자자료 활용 연구들은 3D 스캐닝을 통한 시각 자료의 고도화를 통해 더욱 정밀한 분석과 판독을 바탕으로 연구의 고도화와 심화가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GIS의 활용과 같은 새로운 연구 방법론의 도입, 그리고 디지털 인문학의 대두와 함께 연구주 중심으로 향유되던 연구 성과들의 대중화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이 연구 주제의 다양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마지막 시기는 2020~2025년까지로, 세계적 팬데믹 환경을 맞이하면서 한국고대사 연구도 환경과 질병 등에 관심이 커지고, 나아가 의학 분야와의 학제간 연구를 도모하는 등의 급변하는 시기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전통적 방법론과 주제의 연구들이 여전히 다수를 점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융합적 학제간 연구를 추진하고, 최근에는 AI 등 미래 과학 기술을 활용한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는데 이르고 있다. 한국고대사 연구가 전통적 주제와 연구방법론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발표는 발표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그간의 연구 성과들을 재단하여 데이터화하고 계량적으로 분석한 것이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솔직히 말해두고 싶다. 그러나 파편적인 연구 논문들을 통해 한국고대사 학계의 어떠한 경향성을 찾아보려고 했고, 그 일부나마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간 부족으로 정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추후 시간을 가지고 보완하고자 한다.

<부표 1> 2011~2025년(61~120호) 게재 논문 일람

연도	호수	구분	제목	저자명	소속 구분	주 사용 자료	시대
2011	61	특집: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 100년) 식민주 의적 한국고 대사 인식의 비판과 과제	일제강점기 『삼국사기』 신라본기 초기기사 비판론에 대한 극복과정과 과제	이부오	중등 교원	문헌	삼국이전
			식민주의적 고조선사 인식의 비판과 과제	조법종	대학 교원	문헌	삼국이전
			일제시기 조선사 편수와 만선사적 고구려사의 역설	김일권	대학 교원	문헌	삼국이전
			日帝強占期 百濟 故地에 대한 古蹟調査事業	이병호	전문 기관	고고	백제
			식민사관에 의한 가야사연구와 그 극복	남재우	대학 교원	문헌	가야
		한국고대사연구와 식민주의의 -그 극복을 위한 과제-	이성시	외국	문헌	기타	
	일반	5世紀 前後 國際情勢와 高句麗 平壤遷都의 배경	장종진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고구려	
		喙國(喙己吞)의 위치와 역사에 대한 고찰	전덕재	대학 교원	문헌	가야	
		백제 벽화고분의 조영과 문화 계통	정호섭	대학 교원	고고	백제	
		일리천전투와 고려태조 왕건의 전략전술	신성재	대학 교원	문헌	후삼국	
	62	특집: 실학자 들의 한국고 대사 연구	실학자들의 한국고대사 연구의 의의 -김정희의 진흥왕 순수비 연구를 중심으로-	조인성	대학 교원	문헌	신라
			실학자들의 역사지리관과 고조선 한사군 연구	송호정	대학 교원	문헌	삼국이전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삼한 연구 -연구 추이와 특징을 중심으로-	문창로	대학 교원	문헌	삼국이전
			실학자들의 고구려사·백제사 연구	김현숙	전문 기관	문헌	삼국
			실학자들의 新羅史 연구 방법과 그 해석	채미하	대학 연구소	문헌	신라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발해사 연구 성과	김종복	대학 연구소	문헌	발해	
	일반	신라의 태조 미추왕과 은하수 星漢	정연식	대학 교원	문헌	신라	
		百濟 七支刀의 의미	주보돈	대학 교원	출토문자	백제	
	63	특집: 동아시아 고대의 길	일본 고대의 驛路와 공문서 전달 시스템	이근우	대학 교원	고고	기타
			高句麗의 郵驛制와 交通路 -국내성 시기를 중심으로-	조법종	대학 교원	문헌	고구려
			전북지역 백제와 가야의 교통로 연구	곽장근	대학 교원	고고	백제
5세기 이전 신라의 동해안방면 진출과 '東海岸路'			강봉룡	대학 교원	문헌	신라	
통일신라시기의 간선교통로 -왕경과 주치·소경 간 연결을 중심으로-			정요근	대학 교원	문헌	통일신라	
발해의 5京과 교통로의 기능		윤재운	대학 교원	문헌	발해		
일반	遼東과 韓半島 靑銅器文化의 變遷과 相互交流	이청규	대학 교원	고고	삼국이전		
	백제 5方制의 지방관 구성에 대한 시론	정동준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백제		
64	특집: [임의]교 과서의 한국 고대사 서술	중등 역사교과서 개편의 과정과 성격	김한중	대학 교원	기타	기타	
		제 7차 개정 교육과정 중2 '역사'교과서의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 서술 검토	송호정	대학 교원	기타	삼국이전	
		2011 발간 『중학교 역사(상)』 8종 교과서의 삼국시대 정치사 관련 부분 내용 검토	강중훈	대학 교원	기타	삼국	
		2007년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역사(상) '삼국의 사회와 문화' 분석	조법종	대학 교원	기타	삼국	
	일반	『중학교 역사』의 통일신라·발해 서술 검토- 검정 교과서(2011년) 8종의 내용과 시각 자료 -	하일식	대학 교원	기타	통일신라	
		제7차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신라 하대~고려 초 서술의 검토	조인성	대학 교원	기타	후삼국	
		초등 사회교과서 국사영역의 한국고대사 서술 검토	임기환	대학 교원	기타	기타	
		古朝鮮의 毛皮貿易과 明刀錢	강인욱	대학 교원	고고	삼국이전	
일반	玄菟郡의 改編과 高句麗 -'夷貊所侵'의 의미와 郡縣의 對應을 중심으로	이성제	전문 기관	문헌	삼국이전		
	신라 왕실 삼성(三姓)의 연원	김기흥	대학 교원	문헌	신라		
	백제문화의 도교적 요소	김영심	대학 연구소	고고	백제		
	신라의 태자 책봉제 수용 과정 고찰	김병곤	대학 교원	문헌	신라		
65	일반	신라의 衣生活와 織物 생산	박남수	전문 기관	문헌	통일신라	
		無와 裏面の 역사, 한국 고대의 생활사를 위하여	송기호	대학 교원	기타	기타	
		한국 고대의 죽음과 喪·祭禮	채미하	대학 교원	문헌	삼국	
2012	65	일반	古代의 百戲雜技와 舞樂	전덕재	대학 교원	문헌	삼국
			포항중성리신라비의 構造와 내용	주보돈	대학 교원	출토문자	신라

			안압지 출토 木簡으로 본 新羅의 洗宅	이문기	대학 교원	출토문자	통일신라		
			密本の 『藥師經』 신앙과 그 의미	김연민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신라		
66	특집: 안압지 고구려 유물 성격		고구려 적석층의 입지와 존재 양태의 의미	강현숙	대학 교원	고고	고구려		
			고구려 國內城 지역의 건물유적과 都城의 공간구조	여호규	대학 교원	고고	고구려		
			안압지 중·상류 고구려 성곽의 분포 양상과 기능의 변화	이경미	대학 교원	고고	고구려		
			高句麗 瓦當의 毀棄와 그 象徵的 意味	백종오	대학 교원	고고	고구려		
	일반		대릉하~서북한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변동과 고조선의 위치	박준형	대학 연구소	고고	삼국이전		
			廣開土大王陵碑의 정복기사해석- 신묘년기사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김영하	대학 교원	출토문자	고구려		
			6세기 전반 대가야의 왕위 교체와 정책의 변화- 異腦王에서 嘉悉王으로의 왕위교체를 중심으로 -	노중국	대학 교원	문헌	가야		
			唐代 백제유민 禰氏家族 墓誌에 관한 고찰	배근흥	외국	출토문자	백제		
			광개토왕대의 정복활동과 고구려 세력권의 구성	노태돈	대학 교원	출토문자	고구려		
			高句麗 廣開土大王 전후 王號의 性格 -五胡諸國·北魏의 諡號·廟號 및 游牧國家의 可汗號와의 비교-	최진열	대학 연구소	문헌	고구려		
67	특집: 고구려 광개토왕과 동아시아		고구려 王號제도에 관한 몇 가지 추론	羅新	외국	문헌	고구려		
			4세기-5세기 초 高句麗와 慕容燕의 영역확장과 지배방식 비교	여호규	대학 교원	문헌	고구려		
			廣開土王의 遼西地方 進出에 대한 고찰	공석구	대학 교원	문헌	고구려		
			廣開土王代의 南方 政策과 韓半島 諸國 및 倭의 動向	이도학	대학 교원	문헌	고구려		
			廣開土王의 對外關係와 永樂 5年의 對禿麗戰	井上直樹	외국	출토문자	고구려		
			고구려 광개토왕 시기 慕容鮮卑와의 관계 및 문화교류	李明仁	외국	고고	고구려		
			대중교육과 대중매체에 나타난 광개토왕대 고구려 역사상	임기환	대학 교원	문헌	고구려		
			일반		3세기 후반 「晉高句麗率善」印과 高句麗의 對西晉 관계	이승호	대학원생(졸업포함)	출토문자	고구려
					고구려 扁堂의 설립과 의의	이정빈	대학 교원	문헌	고구려
					新羅村落文書의 戶等 算定 방법	백영미	전문 기관	출토문자	통일신라
68	일반		고구려 초기의 천도에 관한 약간의 논의	노태돈	대학 교원	문헌	고구려		
			4世紀末 高句麗와 後燕의 關係- 396년 後燕의 廣開土王 冊封 問題를 중심으로 -	이성제	전문 기관	문헌	고구려		
			고려 광개토왕대 불교와 유교의 전개양상	조경철	대학 교원	문헌	고구려		
			5세기 羅·麗 관계변화와 <中原高句麗碑>의 建立	서지영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고구려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와 중앙아시아의 교류	전호태	대학 교원	기타	고구려		
			新羅의 奴人- 城山山城 木簡과 <蔚珍鳳坪碑>를 중심으로 -	이경섭	대학 교원	출토문자	신라		
			신라 통일기 梵鍾의 銘文 분석과 사회상 - 上院寺 梵鍾의 銘文을 중심으로 -	김재홍	대학 교원	출토문자	신라		
			통일신라시대의 食文化 연구 -왕궁의식문화를 중심으로	권주현	대학 교원	기타	통일신라		
			한국 고대 금석문 자료에 대한 사료 비판론	강중훈	대학 교원	출토문자	기타		
			2013	69	일반	경주 출토 백제계 기와 제작기술의 도입과정 -傳 呼문사지 출토품을 중심으로-	이병호	전문 기관	고고
고구려의 의약 교류	이현숙	대학 연구소				문헌	고구려		
七支刀의 성격과 제작배경-도교와의 관련성 검토-	김영심	대학 교원				출토문자	백제		
高句麗의 樂浪·帶方 故地 영역화 과정과 지배방식	안정준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고구려		
602년 阿莫城 戰鬪의 배경과 성격	박종욱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백제		
신라 「法光寺石塔記」와 御龍省의 願堂 운영	박남수	전문 기관				출토문자	통일신라		
錦繪에 투영된 神功皇后傳說과 韓國史像	연민수	전문 기관				문헌	기타		
集安 高句麗碑의 발견과 소개	이영호	대학 교원				출토문자	고구려		
集安 高句麗碑의 拓本과 判讀	윤용구	전문 기관				출토문자	고구려		
신발견 <集安高句麗碑>의 구성과 내용 고찰	여호규	대학 교원				출토문자	고구려		
70	특집: 신발견 '집안 고구려비' 종합 검토			集安 高句麗碑의 性格과 주변의 高句麗 古墳	정호섭	대학 교원	출토문자	고구려	
				集安 高句麗碑에 나타난 왕릉제사와 조상인식	조우연	대학 연구소	출토문자	고구려	
				<集安 高句麗碑>로 본 守墓制	이성제	전문 기관	출토문자	고구려	
				집안 고구려비의 판독과 문자 비교	손인걸	외국	출토문자	고구려	

2014	일반	중국 지안에서 출토된 고구려비의 진위(眞僞) 문제	경철화	외국	출토문자	고구려	
		慶州 仁旺洞 19·20號墳의 發掘成果 追報-未報告 금속유물의 소개를 겸하여-	이현태	전문 기관	고고	신라	
		백제의 왕·후호제와 금동관 부장자의 실체-歸葬을 중심으로-	노중국	대학 교원	고고	백제	
	71	특집: [임의]한 고대의 도성	弓裔의 出身에 대한 再論	송은일	대학 교원	문헌	후삼국
			중국 고대 도성 廟壇의 기원과 전개	박순발	대학 교원	고고	기타
			고구려 도성의 의례공간과 왕권의 위상	여호규	대학 교원	문헌	삼국이전
		일반	百濟 泗泚時期 都城의 儀禮 空間과 王權-統合中樞로서의 王宮과 寺院을 중심으로-	이병호	전문 기관	고고	백제
			발해 도성의 의례공간과 왕권의 위상	윤재운	대학 교원	고고	발해
			隋 大興城의 의례 공간 형성과 그 기능	최재영	대학 교원	문헌	기타
	72	일반	新羅時代의 花郎 認識	김상현	대학 교원	문헌	신라
			장수왕대 고구려의 對中外交와 그 動因	최일례	대학 연구소	문헌	고구려
			신라 선덕여왕과 영묘사	김선주	대학 교원	문헌	신라
			集安高句麗碑의 건립시기와 성격	김현숙	전문 기관	출토문자	고구려
			「집안고구려비」에 보이는 율령제	김수태	대학 교원	출토문자	고구려
		일반	〈集安高句麗碑〉에 나타난 高句麗 律令의 형식과 守墓制	홍승우	대학 연구소	출토문자	고구려
			신라 황룡사의 창건과 진흥왕의 왕권 강화	최선자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신라
			대가야 멸망 과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加耶叛」 기사를 중심으로-	신가영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가야
			7세기 고구려 불교정책의 한계와 國祖神	방용철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고구려
			신라 中古期 三綱制의 시행과 그 기능-慈藏의 활동과 관련하여-	김영미	대학 교원	문헌	신라
	73	일반	聖住寺 創建 以前 先代伽藍에 대한 檢討	임종태	전문 기관	고고	삼국이전
			신라 太賢의 阿彌陀信仰과 사회적 의미	송보혜	전문 기관	문헌	통일신라
			고조선~삼국시기 교역사 연구의 검토	박준형	대학 연구소	문헌	기타
			4세기 慕容鮮卑 前燕의 성장과 고구려의 대응	박세이	대학 교원	문헌	고구려
	74	특집: 후백제 왕도 전주이재조명	금강 유역 한성기 백제 지방사회의 교류와 지역권	이현숙	대학 연구소	고고	백제
新羅 王京 출토 銘文土器의 생산과 유통			김재홍	대학 교원	고고	통일신라	
후백제의 역사적 성격			신호철	대학 교원	문헌	후삼국	
全州 東固山城의 考古學的 檢討			강원중	전문기관	고고	후삼국	
일반		후백제의 왕궁 위치와 도성 규모	김주성	대학 교원	고고	후삼국	
		신라 하대 서남해 지역 禪僧과 후백제	장일규	대학 연구소	문헌	후삼국	
		후백제 도성 동고산성의 보존과 활용	정재윤	대학 교원	문헌	후삼국	
		「陳法子 墓誌銘」의 검토와 백제 관제	정동준	대학 연구소	출토문자	백제	
75	특집: 고구려 유민 묘지명의 검토	星湖 李瀾(1681~1763)의 삼한 인식	문창로	대학 교원	문헌	삼국이전	
		魏晉南北朝-隋唐時代 葬俗 · 葬具의 變化와 墓誌銘- 그 資料的 性格-	박한제	대학 교원	출토문자	기타	
		중국 출토 고구려·백제유민 묘지명 연구동향	윤용구	전문 기관	출토문자	삼국	
		唐 墓誌의 고대 한반도 삼국 명칭에 대한 검토	권덕영	대학 교원	출토문자	삼국	
		高句麗·百濟遺民 墓誌의 出自 기록과 그 의미	이성제	전문 기관	출토문자	고구려	
		遺民墓誌로 본 고구려, 백제의 官制	김영심	대학 교원	출토문자	삼국	
	일반	唐代 高句麗·百濟系 蕃將의 존재양태	이기천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삼국	
		5세기 이전 고구려의 王命體系와 집안고구려비의 '敎'·'令'	김창석	대학 교원	출토문자	고구려	
		男生の 失脚 배경과 그의 行步	정원주	대학 교원	문헌	고구려	
		일본 儀鳳曆의 傳來 문제와 新羅	고현정	전문 기관	문헌	통일신라	
		祿軍 墓誌의 "日本"에 대한 검토-"日本" 및 그와 관련된 용어를 중심으로-	이용현	전문 기관	출토문자	백제	
		76	특집: 고조선의 새로운 모색	홍산문화론- 牛河梁 유적과 중국 초기 문명론을 중심으로 -	김정열	대학 교원	고고
일반	戰國·秦·漢시기 遼東郡과 그 경계	송진	대학 연구소	문헌	삼국이전		
	기원전 2세기대 서북한 고고 자료와 위만조선	오영찬	대학 교원	고고	삼국이전		
	「만선사」에서의 고대 만주 역사에 대한 인식	박찬흥	전문 기관	문헌	고구려		
77	일반	거칠부의 出家와 出仕	주보돈	대학 교원	문헌	신라	
		집안고구려비의 성격과 고구려의 수묘제 개편	기경량	대학 교원	출토문자	고구려	
2015	77	高句麗·百濟遺民 誌文構成과 撰書者	이동훈	대학 교원	출토문자	삼국이전	
		초기 고구려의 주도세력과 현도군	장병진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삼국이전	

2016		高句麗 年號 開始에 대한 考古學的 論意	강현숙	대학 교원	고고	고구려	
		울산 천전리 서석 암각화의 용	전호태	대학 교원	기타	신라	
		요동반도 고구려성 현황과 지방지배의 구성	임기환	대학 교원	고고	고구려	
		廣開土太王碑의 제1면 9행 13자 釋文 검토	고광의	전문 기관	출토문자	고구려	
		4~5세기 남부가야제국과 전남동부 지역집단의 상호 관계	김양훈	대학 교원	고고	가야	
		백제 의복 고유양식의 성립과 변화	나선정	대학 교원(타전공)	기타	백제	
		백제 멸망 이후 馬韓 인식의 변화 양상	김수미	대학 교원	문헌	백제	
	78	특집: 한국고대사상의 익산	한국 고대사상의 익산 문화권	김정배	전문 기관	문헌	기타
			기원전 2세기 古朝鮮 準王의 南來와 益山	송호정	대학 교원	고고	삼국이전
			문헌자료로 본 사비시기의 익산	김영심	대학 교원	문헌	백제
			고구려유민의 백제 金馬渚 배치와 報德國	조법종	대학 교원	문헌	백제
		일반	낙랑군 동부도위 지역 邊縣과 군현지배	김병준	대학 교원	출토문자	삼국이전
			고구려 초기의 都城과 改都 -태조왕대의 왕실교체를 중심으로-	권순홍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고구려
			6~7세기 新羅 軍律의 운용과 그 양상	신범규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신라
			신라 통일기 新三千韓의 설치와 운용	한준수	대학 연구소	문헌	신라
			원감 현옥의 실상사 주석과 실상산문의 사자상승	배재훈	대학 교원	문헌	통일신라
			『三國遺事』의 後人夾註에 대한 再檢討	윤선태	대학 교원	문헌	신라
	79	일반	『한서』 지리지 낙랑군 3수의 비정에 대한 검토	박성현	대학 교원	문헌	삼국이전
			마한 성립의 고고학적 일고찰	최완규	전문 기관	고고	삼국이전
			生業으로 본 韓과 濊의 종족적 특성	김재홍	대학 교원	문헌	삼국이전
			『三國史記』의 高句麗 王城 記事 檢證	이도학	대학 교원	문헌	고구려
			고구려 東盟祭·隧神祭와 神廟	이춘우	전문 기관	문헌	고구려
			『三國遺事』 諸版本의 서지적 분석	남권희	대학 교원(타전공)	문헌	기타
			佛敎 考古學과 美術史에서 『三國遺事』의 활용과 과제	엄기표	대학 교원	기타	삼국
	80	일반	역사음운학과 고고학으로 탐색한 關川 楊山村	정연식	대학 교원	기타	신라
			373년 고구려 울령의 반포 배경과 그 성격	전덕재	대학 교원	문헌	고구려
麗羅密約說의 검토			이영재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삼국이전	
목간 자료로 본 백제의 籍帳 문서와 수취제도			홍승우	대학 교원	출토문자	백제	
연개소문의 집권과 고구려의 대외정책 변동			방용철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고구려	
신라와 고려의 형률 운용과 계승성 -모반죄·불효죄와 결장배류형을 중심으로-	한영화	대학 연구소	문헌	신라			
81	특집: 한국고대사회의 공동체	한국고대사 연구와 공동체 이론	이현혜	대학 교원	문헌	기타	
		동예의 읍락과 사회상·不耐濊國을 중심으로-	문창로	대학 교원	문헌	삼국이전	
		고구려 王都, 王畿의 형성 과정과 성격	조영광	전문 기관	문헌	고구려	
		백제 地方都市의 성립과 전개·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이영철	전문 기관	고고	백제	
	일반	취락과 고분으로 본 5세기 후반~6세기 초 고대 일본 지방의 변화상-군마(群馬)현 시부카와(澁川)시 가나히가시우라(金井東裏) 유적의 조사와 그 의의-	右島和夫	외국	고고	기타	
		한국 고대 香徒의 조직과 역할	채웅석	대학 교원	문헌	삼국	
		秦 長城 東端인 樂浪郡 遂城縣의 위치문제	공석구	대학 교원	문헌	삼국이전	
		영남지방 목관묘와 사로국	김용성	전문 기관	고고	신라	
		사로국의 건국 주체세력과 그 과정	전덕재	대학 교원	문헌	신라	
		사로국의 성장과 대외교섭-대중국 관계를 중심으로-	김수태	대학 교원	문헌	신라	
82	특집: 사로국 건국과정 성장	신라 초기 천신 신앙과 산악 숭배 -종교문화의 측면에서 본 사회 통합과 지배체제의 정비-	나희라	대학 교원	문헌	신라	
		영남지역 읍락의 형성과 변화 -경주·경산·김해지역을 중심으로-	김권구	대학 교원	고고	삼국이전	
		고구려 안장왕대 정국 변화와 그 動因	최일레	대학 교원	문헌	고구려	
	일반	612년 고구려 원정 隋軍의 군단 편성과 兵種 구성	정동민	대학 교원	문헌	고구려	
		신라의 得難 신분과 阿滄 重位制	하일식	대학 교원	문헌	삼국이전	
		신라 말 해인사와 주변 지역 정세	권영오	중등 교원	문헌	통일신라	
		古代王權의 전개와 전환 -신라 왕권의 추이를 중심으로-	김영하	대학 교원	문헌	신라	
83	특집: 한국고대왕권	春秋戰國시대 王權의 변화와 성격	이성원	대학 교원	문헌	기타	
		고구려 王系의 성립과정과 시기	임기환	대학 교원	문헌	고구려	
		3~4세기 백제의 대외관계와 왕권의 추이	박현숙	대학 교원	문헌	백제	

2017	84	일반	신라 하대 정치형태와 국왕의 위상	김창겸	대학 연구소	문헌	통일신라	
			고구려 守墓碑 건립의 연혁과 배경	강진원	대학 교원	출토문자	고구려	
			신라 중고기의 왕실 계보와 불교 이념 - 『석가보』의 수용을 중심으로 -	고현아	대학 교원	문헌	신라	
			신라 성덕왕대 禁殺生 下敎의 배경과 의미	신선혜	대학 연구소	문헌	통일신라	
			9세기 전반 신라의 정치동향과 충공의 역할	손흥호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통일신라	
		특집: 대중과 소통하는 한국고대사	한국고대사의 대중화와 대중문화화	최광식	대학 교원	기타	기타	
			한국 고대사 관련 디지털 역사자료 구축의 성과와 과제	주성지	전문 기관	기타	기타	
			고고학 자료 데이터베이스화의 현황과 과제	차순철	전문 기관	기타	기타	
			드라마·영화에 나타난 한국고대사	정동준	대학 교원	기타	기타	
			역사스토리텔링과 한국고대사	정재윤	대학 교원	기타	기타	
	일반	체험형 역사콘텐츠와 한국고대사- 역사적 상상력의 제고를 중심으로 -	최희수	대학 교원	기타	기타		
		박물관 속의 고대사- 국립중앙박물관 통사관 전시 -	김재홍	대학 교원	기타	기타		
		학교에서의 한국고대사 교육 현황과 교과서 서술의 올바른 방향	송호정	대학 교원	기타	기타		
		百濟 西岳 旦那山과 慧顯의 修德寺 達拏山寺	이장웅	전문 기관	문헌	백제		
		唐代 營州 출신 고구려계 高英淑의 묘지명 검토	권은주	대학 교원	출토문자	고구려		
	85	특집: 가야사 연구의 회고와 전망	가야사 연구의 새로운 進展을 위한 提言	주보돈	대학 교원	문헌	가야	
			전기 가야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남재우	대학 교원	문헌	가야	
			전기 가야의 고고학적 연구 쟁점과 전망	홍보식	전문 기관	고고	가야	
			후기 가야 고고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이동희	대학 교원	고고	가야	
		일반	『史記』, 『漢書』 注文의 '古朝鮮' 관련 기사	윤용구	전문 기관	문헌	삼국이전	
			高句麗와 百濟의 初期 佛敎 受容 過程	안성진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삼국	
			牟頭婁墓誌銘에 투영된 5세기 고구려의 정치세력	최일레	대학 교원	출토문자	고구려	
			백제 동성왕대 대남제 외교전략 - 『남제서』 백제전의 표문을 중심으로 -	박찬우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백제	
			백제 구태묘 제사의 내용과 의의	김경화	대학 교원	문헌	백제	
高句麗 遺民 <李他仁墓誌銘>의 재판독 및 주요 쟁점 검토			여호규	대학 교원	출토문자	고구려		
신라 중대 王母의 칭호와 위상- 혜공왕대 만월태후를 중심으로 -			이현주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통일신라		
『百濟略有遼西』記事의 기술배경과 漢人 유이민 집단- 管平郡縣 설치를 중심으로 -			백길남	전문 기관	문헌	백제		
4~5세기 樂浪·帶方郡 故地の 中國地名 官號 출현 배경			안정준	대학 연구소	문헌	고구려		
보살계 사상의 전개와 원효 『菩薩戒本持犯要記』의 성격			박광연	대학 연구소	문헌	신라		
86	일반	문무왕대 고구려·가야의 조상제사 재개 조치와 그 의미- 중국 二王後 제도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박초롱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통일신라		
		천문대로서의 첨성대 이설(異說)에 대한 재론(再論)	서금석	대학 교원	기타	신라		
		고대 일본의 蘇我氏와 百濟系 씨족	박재용	전문 기관	문헌	백제		
		신라 하대 선덕여왕 재인식과 추승	김선주	대학 교원	문헌	통일신라		
		삼한시기 논쟁의 맥락과 접점	박대재	대학 교원	문헌	삼국이전		
	특집: 한국고대사의 쟁점	고구려의 국내성·한도성과 천도	이정빈	대학 교원	문헌	고구려		
		신라의 '골품제', 그간의 논의와 약간의 전망	이재환	대학 교원	문헌	신라		
		87	일반	春秋戰國시기 燕文化의 중국동북지역 확산 및 토착 집단과의 관계 -고고학자료를 중심으로-	배현준	대학 연구소	고고	삼국이전
				金屬遺物 副葬樣相을 통해 본 加羅國圈 古墳群의 性格	조영제	대학 교원	고고	가야
				대가야 고대국가론	김세기	대학 교원	고고	가야
신라의 道薩城·錦峴城 전투와 國原 진출	윤성호			전문 기관	문헌	신라		
新羅 下代 行守制 試論	박수정			대학 교원	문헌	통일신라		
88	특집: 한국고대사의 쟁점	新羅 聖德王代의 對日關係와 '王城國'	야마다 후미토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통일신라		
		평양 지역 고구려 왕릉의 위치와 피장자	기경량	대학 교원	고고	고구려		
		백제 사비기 왕릉 발굴의 새로운 성과와 역사적 해석	서현주	대학 교원	고고	백제		
		신라 마립간기 왕릉의 새로운 성과와 해석	김대환	전문 기관	고고	신라		

2018	일반	가야의 왕릉급 고분에 대한 역사적 해석	백승옥	전문 기관	고고	가야	
		고구려와 중국왕조의 만주지역에 대한 공간인식	여호규	대학 교원	문헌	고구려	
		滿洲지역 地方志에 나타난 한국고대사-遼寧省地域 자료소개를 중심으로-	조법중	대학 교원	문헌	삼국이전	
		완충지대로서의 요동을 통해 본 신라·발해·당의 관계	김종복	대학 교원	문헌	기타	
		고령 장기리암각화 연구	전호태	대학 교원	기타	삼국이전	
		6세기 加羅의 對 羅·濟 관계	유우창	대학 교원	문헌	가야	
	89	일반	정창원 신라금이 가야금이 아닌 이유	김성혜	대학 교원	기타	가야
			『晉書』 馬韓 교섭기사의 주체와 경로	임동민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삼국이전
			'변한과 가야' 연구의 동향과 과제	문창로	대학 교원	문헌	가야
	90	일반	가야제국의 발전단계와 초기고대국가론	이영식	대학 교원	문헌	가야
			신라 6부의 시기적 변천과 기본 성격-연구사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박성현	대학 교원	문헌	신라
			6세기 후반 高句麗의 대외정책 변화와 新羅 阿只城 공격	전상우	대학원생(졸업포함)	기타	고구려
			발해의 강역·대외관계 연구동향과 과제	小宮秀陵	외국	문헌	발해
	91	일반	『三國志』 東夷傳에 나타난 대민지배방식과 民·下戶의 성격	나유정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삼국이전
			백제의 논산 지역 지배와 동방성	김근영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백제
『삼국사기』의 '고구려 멸망' 관련 사론의 맥락			이강래	대학 교원	문헌	고구려	
新羅 文武王 21년(681) 遺詔에 보이는 律令格式 改定令			정병준	대학 교원	문헌	통일신라	
92	일반	新羅 下代 渡唐留學의 성행과 그 배경	강나리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통일신라	
		특집: 삼한 소국과 백제 신라	삼한의 '國邑'에 대한 재인식	박대재	대학 교원	문헌	삼국이전
		진한의 범위에 대한 재검토	전진국	대학 교원	문헌	삼국이전	
		백제 근초고왕대의 마한 영역화에 대한 사료 재검토	정동준	대학 교원	문헌	백제	
		일반	맥족의 분포와 『삼국사기』 소전 '맥국'에 관한 고찰	김창석	대학 교원	문헌	삼국이전
			北沃沮의 기원과 실체에 관한 高句麗의 두만강 유역 進出	이종록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삼국이전
천전리 각석 명문 연구	전호태		대학 교원	출토문자	삼국이전		
任那日本府 사료의 세계와 日本史學	연민수	전문 기관	문헌	기타			
羅振玉의 금석학과 『唐代海東藩閩誌存』	권덕영	대학 교원	출토문자	기타			
93	일반	삼한 소국 네트워크의 위계 구조와 斯盧國	남혜민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삼국이전	
		신라 상고기 典의 운영과 재편	정덕기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신라	
		고고자료로 본 소가야의 권역과 변천	김규운	대학 교원	고고	가야	
		百濟 法華信仰과 占察懺悔-부여 능산리사지 '宿世結業' 목간을 중심으로-	이장웅	전문 기관	문헌	백제	
94	특집	彌薩의 大城·王都 5部 駐在와 그 職任	이성제	전문 기관	문헌	삼국이전	
		총론 : 새로운 金石文의 출현과 신라사 연구의 진전	주보돈	대학 교원	출토문자	신라	
		4~6세기 포항·울진 지역의 고분 문화	이인숙	전문 기관	고고	신라	
	일반	한국 고대 금석문의 발견지와 건립지	하일식	대학 교원	출토문자	신라	
		신라 중성리비의 서사구조와 6부인의 지배이념	여호규	대학 교원	출토문자	신라	
		금석문을 통해 본 6세기 신라 법제와 지방민 인식 변화	윤진석	대학 교원	출토문자	신라	
6세기 「봉평리비」의 奴人村과 村使人	최경선	대학 연구소	출토문자	신라			
신라 在城에 대한 새로운 해석	전경효	전문 기관	출토문자	신라			
95	일반	신라 중고기의 '代法'과 역역동원체계-함안 성산산성 출토 218호 목간을 중심으로-	강나리	대학원생(졸업포함)	출토문자	신라	
		고고학으로 본 가야의 개념과 영역	김세기	대학 교원	고고	가야	
		금관가야 고고학의 연구성과와 흐름	조성원	대학 연구소	고고	가야	
		변진사회의 분화와 구야국의 성장	박대재	대학 교원	문헌	가야	
		문헌으로 본 가야사의 획기	남재우	대학 교원	문헌	가야	
		4~6세기 加耶의 對百濟·新羅 관계	백승옥	전문 기관	문헌	가야	
6세기 前半 安羅國 주도의 加耶諸國 관계 이해를 위한 기초적 검토	위가야	대학 연구소	문헌	가야			
『三國史記』 祭祀志의 原典과 編纂	전덕재	대학 교원	문헌	기타			
특집: 새로운 고대사 연구를	고조선의 대외관계사 연구를 위한 새로운 모색-조공 책봉관계를 중심으로-	박준형	대학 교원	문헌	삼국이전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遼東'과 고구려의 國際秩序 인	안정준	대학 교원	출토문자	고구려			

2020	96	위한 모색	식-「廣開土王碑」文에 보이는 국제질서 인식의 역사적 배경-				
			백제 무령왕대 '更爲強國'설의 재검토	위가야	대학 연구소	문헌	백제
			'통일신라'사 연구의 현황과 새로운 모색	이재환	대학 교원	문헌	통일신라
		일반	발해사 연구성과의 정량적 분석을 통한 연구방향 모색	김진광	대학 연구소	문헌	발해
			고대 부산지역 정치체의 성격-독로국을 중심으로-	유우창	대학 교원	고고	가야
			8세기 후반 동아시아 役制 변화를 통해 본 영천청제비 정월명의 法功夫	이미란	대학 교원	출토문자	기타
	특집: 포항중성리비 재검토	고고자료로 본 4~6세기 포항지역 읍락 구조와 지배 집단의 재편	장기명	전문 기관	고고	신라	
		<포항중성리신라비> 글씨의 특징과 서예사적 의의	정현숙	대학 연구소	출토문자	신라	
		포항 중성리 신라비 다시 읽기 -중국 고대 행정문서와의 비교를 통해-	김병준	대학 교원	출토문자	신라	
	일반	포항 중성리비의 '窟'과 상고기 신라의 地域支配	김창석	대학 교원	출토문자	신라	
		포항 중성리비에서 '奪'·'還'의 대상 -토지 문제와 관련하여-	하일식	대학 교원	출토문자	신라	
		부여의 국가구조와 四出道	이승호	대학 연구소	문헌	삼국이전	
	97	일반	신라 진흥왕대의 새 영토·주민 시책	이일규	대학원생(졸업포함)	출토문자	신라
			신라의 鑛石 인식과 그 특징	김민수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신라
	98	일반	5세기 말~6세기 중엽 加羅國과 加耶諸國의 관계- 加羅同盟의 성립과 구조에 대하여 -	백진재	전문 기관	문헌	가야
			6세기 백제의 가야 진출에 대하여	장미애	대학 연구소	문헌	백제
			고구려 고분벽화의 개	전호태	대학 교원	기타	고구려
			新羅 五廟制 受容의 意味	김나경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신라
			신라 王都 성립의 전후	박성현	대학 교원	문헌	신라
			성산산성 목간과 신라사 연구	이경섭	대학 연구소	출토문자	신라
		특집: 발견 40주년 기념 "충주 고구려비 연구의 새 단계"	고대일본의 조형문화와 한국계 화공씨족	연민수	전문 기관	문헌	삼국
			충주 고구려비 판독을 위한 3차원 스캐닝 기술의 적용 및 고찰	조영훈	대학 교원	기타	고구려
			충주 고구려비의 판독문 재검토 -題額과 干支를 중심으로-	고광의	전문 기관	출토문자	고구려
			충주고구려비의 단락구성과 건립시기	여호규	대학 교원	출토문자	고구려
충주고구려비의 高麗 大王과 東夷 寐錦			임기환	대학 교원	출토문자	고구려	
<忠州高句麗碑>의 건립 목적과 배경			이성제	전문 기관	출토문자	고구려	
99	일반	가야 諸國과 고구려의 관계	신가영	대학 교원	문헌	가야	
		신라공방의 생산과 유통 검토	차순철	전문 기관	고고	신라	
100	일반	中古期 新羅의 租稅收取와 力役動員	전덕재	대학 교원	출토문자	통일신라	
		중국사서로 본 弁辰과 慕韓 - 傳文文獻의 시대적 변용을 중심으로 -	윤용구	대학 교원	문헌	삼국이전	
		6세기 전반 가야와 신라의 관계	이연심	전문 기관	문헌	신라	
		가야지역 도질토기의 생산체계와 유통의 추이	조성원	대학 연구소	고고	가야	
		경제적 측면에서 본 고대사회의 진흥	정동준	대학 교원	문헌	삼국	
		고구려 초기 정치세력의 분포와 계류부의 등장 - 천도 왕실교체에 대한 재검토를 겸하여 -	이준성	전문 기관	문헌	고구려	
	특집: 동궁과 월지 조사 연구 현황과 과제	고구려 전기의 지배세력 재편과 관등제	장병진	대학 교원	문헌	고구려	
		高句麗의 對新 관계 전개와 高句驪侯	김효진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고구려	
		고구려의 韓半島 中部地域 지배와 漢城 別都의 건설	여호규	대학 교원	문헌	고구려	
		眞番의 변천과 百濟 건국집단의 出自	김창석	대학 교원	문헌	백제	
		신라 内外兵馬事의 성격과 변화 양상	신범규	전문 기관	문헌	신라	
		한국 고대사 연구 33년간의 발자취	하일식	대학 교원	기타	기타	
100	일반	동궁과 월지 조사 연구 현황과 과제	이상준	전문 기관	고고	통일신라	
		경주 東宮과 月池 유적 건물지 配置 및 空間區劃 검토	김경열	전문 기관	고고	통일신라	
100	일반	세계유산으로서 동궁과 월지의 가치와 보존- 동궁과 월지 복원사업과 법체계를 중심으로 -	양정석	대학 교원	기타	통일신라	
		고대 동아시아의 東宮과 신라 東宮	이재환	대학 교원	문헌	통일신라	

			신라 동궁의 구조와 범위	이동주	대학 연구소	고고	통일신라
			신라 月池宮의 성격과 太子宮의 위치	이현태	전문 기관	고고	통일신라
			월지(안압지) 출토 목간의 연구 동향 및 내용 검토	하시모토 시게루	대학 연구소	출토문자	통일신라
		일반	『삼국사기』 '정보' 비판을 위한 제언	이강래	대학 교원	문헌	삼국이전
			문헌에 나타난 신라의 성립과 사로국	박대재	대학 교원	문헌	신라
		일반	고대 창녕 지역의 소국 설정	전진국	대학 교원	문헌	가야
	101	특집: 한국고대사 와 창녕	比斯伐의 공간과 역사적 성격	백승옥	전문 기관	문헌	가야
			삼국시대 창녕지역 정치세력의 성장과 가야	홍보식	대학 교원	고고	가야
			창녕 교동11호분 출토 명문대도 재검토	홍승우	대학 교원	출토문자	가야
			창녕 관릉사 석불좌상 명문의 재검토	박광연	대학 교원	출토문자	통일신라
		일반	덕흥리벽화고분의 '觀者'목서와 '觀覽者'	김근식	대학 교원	출토문자	고구려
			고구려 평양도읍기 王城의 추이와 왕권	강진원	대학 교원	문헌	고구려
			七支刀 再判讀을 통해 본 百濟와 倭	오택현	대학 교원	출토문자	백제
			한국고대 질병연구의 귀적과 과제	이현숙	대학 연구소	기타	기타
		특집: 한국고대의 질병과 의약	한국 고대 기생충과 질병	전용호	전문 기관	고고	기타
			한국 고대의 질병관과 불교적 치유 방식	김수연	전문 기관	문헌	기타
			한국 고대 역병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	김상현	대학 교원(타전공)	문헌	기타
			한국 고대 의약기술 교류	박준형	대학 교원	문헌	삼국
		일반	고구려-수 전쟁과 전염병	이정빈	대학 교원	문헌	고구려
			현도군위치 옥저지역설을 다시 검토한다 - 『삼국지』 사료비판 -	공석구	대학 교원	문헌	삼국이전
			4~5세기 백제의 인구와 남방영역	김기섭	대학 연구소	문헌	삼국이전
			「昌寧拓境碑」의 '四方軍主'와 新羅의 天下觀	윤선태	대학 교원	출토문자	신라
			645년 고구려군과 당군의 주필산 전투 고찰	문영철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고구려
			고구려 유민 高慈 墓誌에 대한 몇 가지 문제	권덕영	대학 교원	출토문자	고구려
			樂浪·帶方郡 故地의 고분 속에 구현된 對外用 敘事와 구성 의도 - 「德興里壁畫古墳」의 벽화와 傍題 분석을 중심으로 -	안정준	대학 교원	출토문자	고구려
			소금 생산 유적으로 본 1~5세기 초 평안도 지역의 소금 생산 방식	양인호	전문 기관	고고	삼국
		103	백제 솔계 관등의 변천과정과 관직임명	최유림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백제
			백제 서방과 그 성격	김근영	전문 기관	문헌	백제
		일반	신라 중고기 숲사의 성격	김숙희	전문 기관	문헌	통일신라
			官制 측면에서 본 신라 侍衛府의 역할 - 숲사의 소속 가능성 및 업무를 중심으로 -	최상기	대학 교원	문헌	통일신라
			武王代 渤海의 對日本外交 開始에 對한 再檢討 - 大 門藝의 對唐亡命 時期와 渤海-新羅 國境問題를 중심으로 -	김진한	대학 교원	문헌	백제
			신라의 후고구려 인식 - 최치원의 당대 인식을 매개로 -	홍창우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통일신라
			무진주 시기 견훤 정권의 동향	배재훈	전문 기관	문헌	후삼국
			백제 무령왕릉 상장례 재고 - 목관 안치 방식으로 본 매장 의례 복원 -	김규동	전문 기관	고고	백제
		104	공주 송산리 6호분의 구조적 특징과 주인공 문제	서정석	대학 교원	고고	백제
			공주 송산리 고분군 출토 명문전의 재검토	이병호	대학 교원	출토문자	백제
		일반	고구려 강서대묘 벽화 연구	전호태	대학 교원	기타	고구려
			榮留王의 王權 강화와 淵蓋蘇文 政變 - 高乙德 일가의 官歷을 통해 본 영류왕대 政局 -	이성제	전문 기관	출토문자	고구려
			한성도읍기 백제 금동관모의 성격과 지방통치	나용재	대학원생(졸업포함)	고고	백제
			百濟의 王侯號에 대한 역사적 경험과 그 활용 배경	백길남	전문 기관	문헌	백제
			가라국 대외관계의 약간의 모색	유우창	대학 교원	문헌	가야
			한국 고인골에 남은 질병의 흔적	김명주	대학 교원(타전공)	기타	기타
			唐의 喪葬술을 통해 본 고구려-백제 遺民의 喪葬禮	정호섭	대학 교원	문헌	삼국
			청주지역 마한계 취락과 조영 세력	강유지	대학원생(졸업포함)	고고	삼국이전
		105	신라 마립간시기 왕위계승원리와 왕권의 성격	김재홍	대학 교원	문헌	신라
			阿老에서 宮主로 - 新羅 麻立干期 왕실과 宮主 -	백동인	대학 교원	문헌	신라
		일반	5세기대 백제-가야의 교섭과 산청지역의 위상	이동희	대학 교원	고고	가야
			백제 사회와 武寧王 대 遊食者 문제	김영관	대학 교원	문헌	백제

2023			무령왕릉에 대한 일본학계의 연구동향 - 한국학계의 연구성과와 비교를 중심으로 -	박재용	전문 기관	고고	백제	
			가야계 '신라인'의 활동과 위상에 대한 검토	이재환	대학 교원	문헌	신라	
			신라 司正 기구의 정비와 특징	이보림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통일신라	
			10세기 渤海의 滅亡과 그 원인 - 契丹의 군사전략과 鐵利府·東平府 공격을 중심으로 -	문윤수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발해	
	106	특집: 미륵사지 서탑 출토 불사영기와 운새로사 인식		익산 미륵사지 출토 <금제사리봉영기> 연구의 쟁점과 과제 - 문헌사를 중심으로 -	박현숙	대학 교원	출토문자	백제
				미륵사의 창건 주체에 관하여 - 주요 쟁점 검토를 중심으로 -	박지현	대학 교원	출토문자	백제
				미륵사지 사리봉영기에 투영된 불교 사상	길기태	전문 기관	출토문자	백제
				익산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의 관계 비교 시론	이병호	대학 교원	고고	백제
		일반		고고학 자료로 본 익산 쌍릉 피장자	이문형	대학 연구소	고고	백제
				4세기 서북한지역 명문자료의 다중적 메시지	오영찬	대학 교원	출토문자	삼국이전
	107	일반		8세기 신라의 遣唐使와 遣日使 비교 연구	안재건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통일신라
				渤海 康王代 對外交渉의 전개와 그 의미	안재성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발해
				금석문을 통해 본 신라 上代 행정실무조직의 발달과정	이미란	대학 연구소	출토문자	신라
				신라 皇龍寺의 가람 변천과 창건 과정	김정한	대학원생(졸업포함)	고고	신라
				7세기 가야고지 일대의 신라와 백제간 경계 변화	윤성호	대학 교원	문헌	삼국
	108	특집: 신라의 왕경시조		백제 서방성의 설치목적과 기능	지원구	전문 기관	고고	백제
				554년 笮山城 전투의 배경과 전개	전영우	대학 연구소	문헌	백제
				고구려 원정에 나타난 隋唐의 공성전술	송영대	대학 교원	문헌	고구려
				신라 왕경 연구의 성과와 과제	전덕재	대학 교원	문헌	통일신라
		일반		신라 궁성의 건립과 확장을 둘러싼 논의와 새로운 모색	장기명	전문 기관	고고	통일신라
				대릉원 일원 고분군의 입지 검토	정인태	전문 기관	고고	신라
	109	일반		황룡사 회랑 외곽 공간의 구획과 성격 - 동회랑 동편과 강당 북서편을 중심으로 -	김동하	전문 기관	고고	통일신라
				신라의 왕경 관련 행정조직과 운영 -6부소감전을 중심으로 -	한영화	대학 교원	문헌	통일신라
			신라의 東宮과 月城의 관계에 대한 연구 동향 - 동궁 관련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	최상기	대학 교원	문헌	통일신라	
일반			신라 상주 및 화령군의 공간 구조 복원	박성현	대학 교원	고고	통일신라	
			8세기~9세기 초 渤海-新羅의 경계와 충돌 - 新羅道 및 『遼史』 '南定新羅' 기사 재검토를 중심으로 -	박유정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발해	
			기자동래설의 성립 과정에 대한 검토	조원진	대학 연구소	문헌	삼국이전	
110	일반		북한지역 비파형동검문화의 네트워크와 상호작용	이후석	대학 연구소	고고	삼국이전	
			예맥의 종족성과 물질문화	오영찬	대학 교원	고고	삼국이전	
			辰韓의 對外交易과 斯盧國의 성장	김지현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삼국이전	
			高句麗의 庚子年(400) 遠征의 실상과 加耶 諸國의 대응	기경량	대학 교원	문헌	가야	
			서남해안 연안항로 네트워크를 통해 본 백제 한성기 가야와의 관계	임동민	대학 연구소	문헌	백제	
			백제의 對南朝 외교 전략과 遼西經略 기사	안정준	대학 교원	문헌	백제	
	특집: 세계사 속의 고대		고구려의 對唐防禦體制와 645년 전쟁	이성제	전문 기관	문헌	고구려	
			신라 하대 원성왕대의 宗廟와 瑞祥	안주홍	전문 기관	문헌	통일신라	
			한국의 '고대'와 초기국가	박대재	대학 교원	문헌	삼국이전	
			고고학에서 본 한국 고대사 : 한반도의 '초기국가'와 고대	김대환	전문 기관	고고	삼국이전	
			중동 역사에서의 고대	김아리	전문 기관	고고	기타	
일반		이집트에서의 '古代의 記憶'	유성환	대학 연구소	고고	기타		
		일본 고대사 연구의 '왕조(王朝)' 개념	김현경	대학 교원	문헌	기타		
		백제 연씨 세력의 재지기반과 그 활동	강유나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백제		
		羅唐戰爭期 新羅 牛首州의 군사조직 강화와 운용	이영수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신라		
111	일반		혜공왕대 '始定五廟'의 정치적 의미	박초롱	대학 교원	문헌	통일신라	
			야두국의 위치와 韓-낙랑 문물 교류에서의 역할	김남중	대학 연구소	고고	삼국이전	

2024	112	특집: 한국 고대 동아시아 국제관계	목지국 위치 비정	전진국	대학 교원	문헌	백제
			진변한의 형성과 분립 과정 -고고학 자료를 중심으로-	조진선	대학 교원	고고	삼국이전
			『삼국지』, 『후한서』 韓傳의 문헌사적 검토 - 텍스트 修訂을 통한 새로운 이해 -	윤용구	대학 교원	문헌	삼국이전
			‘浦上八國’ 전쟁과 가야와 신라의 관계 변화	신가영	대학 연구소	문헌	가야
			『황복사지 삼층석탑 금동사리함』 명문을 통해 본 신라 중대의 불교	박광연	대학 교원	출토문자	통일신라
			삼국의 대중관계와 表文	박찬우	대학 연구소	문헌	삼국
			東城王代 정치상황과 笞加之 난	장미애	대학 교원	문헌	백제
			부여 동남리 49-2번지 출토 백제 목간의 내용과 용도- 목간 1:2를 중심으로 -	김창석	대학 교원	출토문자	백제
			백제 부여출자설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한상현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백제
			한국 고대 해성 관측기록의 현대 과학적 해석과 목록의 재구성	신기철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기타
	일반	한국 고대 외교와 전쟁의 새로운 이해를 위한 제언	여호규	대학 교원	문헌	기타	
		삼각관계 속의 고대 조선, 존망의 순간 -기원전 4세기~기원전 2세기경 동아시아 국제관계-	최슬기	전문 기관	문헌	삼국이전	
		동원과 연화, 통제와 교섭 : 1~2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전쟁	이준성	전문 기관	문헌	삼국이전	
		전쟁의 이웃들 : ‘ 주변’에서 바라본 3~4세기 동북아시아 전쟁	이승호	대학 교원	문헌	기타	
		5세기 삼국의 대외 위기의식과 전쟁 -평양 천도에서 한성 함락까지-	박찬우	대학 연구소	문헌	삼국	
		연동하는 전쟁, 6세기 삼국과 동아시아 국제관계	위가야	전문 기관	문헌	삼국	
		642년 大耶城 전투에 나타난 신라 軍制의 일면	최상기	대학 교원	문헌	신라	
		후기 고구려 왕실의 표상(表象), 사신도 벽화고분	김근식	대학 교원	기타	고구려	
		‘만주’ 표상의 조선 고대사 -1950~60년대 북한 역사학계와 고대사 연구의 지향-	이경섭	대학 연구소	문헌	기타	
		113	일반	1~3세기 해남지역 정치체의 양상과 소국	서승연	전문 기관	고고
	2세기 고구려의 對後漢 관계와 국제정세			김효진	전문 기관	문헌	삼국이전
	백제 멸망 이전 扶餘隆의 행적과 역할			김준형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백제
	『삼국사기』 신라본기 효공왕 8년조 기사 검토			홍창우	대학 교원	문헌	신라
	문헌기록과 고고자료로 본 올진 성류굴			심현용	전문 기관	고고	신라
상징과 이미지로 본 鮮卑 神話의 세계	강준영			대학 연구소	문헌	기타	
20세기 한국고대사의 반성 -‘위대한 고대사’를 중심으로-	조인성			대학 교원	문헌	기타	
시민을 위한 한국고대사 -대중화의 현황과 과제-	한영화			대학 교원	기타	기타	
한국 고대사와 지역주의적 역사이해 -지역학과 지역사, 지역주의 역사문화권사업의 부각-	조법종			대학 교원	기타	기타	
한국 고대사 연구의 미래를 위한 제언 -21세기 2/4 분기를 맞이하며-	권오영			대학 교원	기타	기타	
114	일반	신라 모량부의 성격과 금척리고분군	김재홍	대학 교원	고고	신라	
		신라 집사부의 직무에 대한 재검토 -집사부 성립기의 ‘기밀사무’를 중심으로-	정동준	대학 교원	문헌	신라	
		5~6세기 백제 이해를 위한 배경적 고찰	박순발	대학 교원	고고	백제	
		웅진기 왕릉과 귀족묘의 구조 변천과 규제 양상	오동선	전문 기관	고고	백제	
		백제 웅진기 사원과 불교문화 교류	이병호	대학 교원	고고	백제	
		백제 웅진기의 왕도 방어체계와 대외관계	김근영	전문 기관	고고	백제	
		웅진기 百濟와 南朝의 文物 교류 방식과 使行 경로	박지현	대학 교원	문헌	백제	
		웅진기 백제와 왜국의 교류	박재용	전문 기관	문헌	백제	
		백제 웅진기 신라 방면 교통로의 정비와 운영	박종욱	대학 교원	문헌	백제	
		출토 문자로 본 ‘옥저’ -‘ 沃沮’에서 ‘ 沃沮’로-	윤용구	대학 교원	출토문자	삼국이전	
115	일반	고대 전북의 해양 신앙과 불교 -부안 죽막동 제사유적을 중심으로-	신선혜	대학 교원	고고	백제	
		옥천 己城山城의 역사고고학적 함의	백종오	대학 교원	고고	신라	
		견훤의 신라 인식 재론	박수정	대학 교원	문헌	통일신라	
		마한 소멸시기 문제 재론	임영진	전문 기관	문헌	삼국이전	
		마한의 기원과 실체에 관한 쟁점	박대재	대학 교원	문헌	삼국이전	
		마한의 공간 인식에 관한 논의 전개	전진국	대학 교원	문헌	삼국이전	
		서울-경기지역 마한의 고고학적 연구사 검토	박중국	대학 연구소	고고	삼국이전	

2025		호서지역 마한 연구의 현황과 과제 -고고학 자료를 중심으로-	장덕원	전문 기관	고고	삼국이전		
		전북지역 마한 연구의 현황과 과제	김은정	전문 기관	고고	삼국이전		
		대외관계 측면에서 본 3세기 마한사회 연구 현황과 쟁점	김영심	대학 연구소	문헌	삼국이전		
		백제의 마한 병합 시기 연구 동향 및 쟁점	김기섭	대학 연구소	문헌	백제		
		2세기 초 夫餘의 後漢 邊塞 공격과 관계 개선	민상록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삼국이전		
		고구려 중기 官制의 구조적 특징과 奴婢	이규호	대학 교원	문헌	고구려		
		백제 웅진 왕도의 공간구조와 문화경관	이현숙	대학 연구소	고고	백제		
		백제의 고부지역 지배와 중방성	백미선	대학 교	문헌	백제		
		唐後期 長安城의 변화와 都城	최재영	대학 교원	문헌	기타		
	117	특집: 『일본서기』를 본 통해 본 7세기 동아시아	7세기 전반 왜국의 국내정세와 대외관계 변화 - 推古朝를 중심으로 -	박재용	전문 기관	문헌	기타	
			『日本書紀』 孝德紀에 보이는 倭國의 대외 관계 - 韓半島諸國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	홍성화	대학 교원	문헌	기타	
			難波長柄豐碯宮을 통해 본 孝德朝의 혁신성	김은정	대학 교원	문헌	기타	
		일반	진국·한의 형성과 삼한 분립	조진선	대학 교원	고고	삼국이전	
			고구려 왕실 교체와 초기 도읍	장병진	대학 교원	문헌	고구려	
			백제 수변 제사 연구	박초롱	대학 교원	문헌	백제	
			『포항 중성리 신라비』의 口述性和 文字性	이경섭	대학 연구소	출토문자	신라	
			新羅의 一統三國 지향과 報德國	신은이	전문 기관	문헌	신라	
			남북조~수당시대의 기자·기자조선 인식	조원진	대학 연구소	문헌	삼국이전	
			人名으로 본 말갈·여진의 관계와 변화	김락기	전문 기관	문헌	기타	
118	특집1: 고대사 연구 방법론 새로운 모색과 확대·디 지탈 고대사	베이지안 네트워크 모델링을 활용한 신라 지배층 가족의 복원	이현주	대학 연구소	기타	신라		
		동진·16국 시기 교섭 데이터의 네트워크 분석- 고대 동아시아 교섭 네트워크와 고구려, 백제-	임동민	대학 교원	기타	삼국		
		생성형 AI(ChatGPT)를 활용한 한국 고대사 연구	안홍좌	대학 교원	기타	기타		
	특집2: 2022개 정교과 정과 한국고 대사	한국고대사와 경험 기반 디지털 콘텐츠 : 현황과 과제	최의수	대학 교원	기타	기타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와 한국고대사 교육	강중훈	대학 교원	기타	기타		
		한국사 교과서 속 '고대 국가' 서술의 변화와 역사교육의 방향	김성현	대학 교원	기타	기타		
일반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반영된 '남북국시대론'의 수용과 역사 인식	위가야	전문 기관	기타	기타			
	4세기 전반 고구려-전연 관계와 '盟'	백다해	전문 기관	문헌	고구려			
119	일반	신라 집사부의 관제 개정과 직무 변화	정동준	대학 교원	문헌	통일신라		
		기원전후~3세기 만주 지역 숲 경관과 변화: 화분 자료와 『삼국지』 동이전 기록 비교	서민수	대학 교원	문헌	삼국이전		
		고고자료로 본 사물국의 기원과 성장	이동희	대학 교원	고고	삼국이전		
		『逸聖尼師今 下令』의 災異論의 성격과 신라 사치 금령 인식의 형성과정	고태진	대학 교원	문헌	신라		
		장수왕 시기 고구려와 유연의 지두우 분할 배경 - 지두우의 위치와 거점을 중심으로-	장수인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고구려		
		5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세 변동과 백제의 유송 외교 정책	음정현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백제		
		6세기 중반 신라·백제의 '盟'과 관산성 전투	이소연	전문 기관	문헌	백제		
		支藥兒食米記를 통해 본 百濟의 道使	송기섭	대학원생(졸업포함)	출토문자	백제		
		『경주 무장사비』 찬술의 정치적 함의와 시기 고찰	박광연	대학 교원	출토문자	통일신라		
		신라 말-고려 초의 身體 관념과 人才觀의 변화	김창석	대학 교원	문헌	통일신라		
		묘지명과 고고자료로 본 在唐 新羅人 金泳	배노찬	외국	고고	삼국이전		
		GIS를 활용한 한국고대사의 '공간' 연구법 검토 - 고고학 GIS와의 연계 필요성-	강동석	대학 교원	기타	기타		
		최근 일본의 한국고대사 연구 동향과 과제 -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모색-	小宮秀陵	외국	기타	기타		
		120	특집1: 동북아 국제정 세와 한국고	한국 고대의 移住와 사회변화	김영심	대학 연구소	문헌	삼국
				385년 고구려의 요동현도 공격과 前後 요동 지역의 인구이동	이정빈	대학 교원	문헌	고구려

	대의 이추정	도래인에 관한 일본고고학 연구의 흐름과 가야계 도래인 -4~5세기를 중심으로-	조성원	전문 기관	고고	가야
		고구려 포로·유민의 당 이주와 정착-당의 對 고구려 전장발지역과 고구려 포로·유민 안치 지역의 상관관계-	김수진	대학 교원	출토문자	고구려
		예군과 예식진 형제의 이주와 정착-아비사당(禰)의 설립과 稱姓-	박윤선	대학 교원	출토문자	삼국이전
		신문왕대 신라의 백제·고구려 유민정책과 인구 이동	최희준	대학 연구소	문헌	통일신라
	특집2: 마한의 사회 구성과 문화	마한 소국의 내부 구조에 대한 재검토-國邑과 別邑의 관계를 중심으로	남혜민	대학 연구소	문헌	삼국이전
		2~3세기의 마한과 목지국	김병남	대학 교원	문헌	삼국이전
		마한 사회구조의 형성과정과 소국	조진선	대학 교원	고고	삼국이전
		백제의 지방통치를 통해 본 마한의 변천	정동준	대학 교원	문헌	백제
		'馬韓聯盟體論'의 검토와 '馬韓 地域聯盟體'	백승옥	전문 기관	문헌	삼국이전
	일반	고구려 中裏大夫와 국왕 근시 조직의 성립	이규호	전문 기관	문헌	고구려
		한국고대 성곽문화의 源流, 六溪土城	백종오	대학 교원	고고	삼국
		北朝時期 高句麗人 高氏 가문의 여러 계통	정해인	대학원생(졸업포함)	문헌	고구려
		사회 전환기의 금령총 조영과 정치 상황	옥재원	전문 기관	고고	신라